朝鮮日報 夕刊 九日(月)

行政管理、國際警察『에』兩案에다不滿

反對의急先鋒은軍部少壯派

聯盟工作엔悲觀態度

【아디스아바바七日發同盟】에디오피아政府는 하와리앗드公使의 報告를 基礎로 쥬네브 形勢의推移에 細心의 注意를 하고 情勢監視의 態度를 가지고잇는데 더욱이 巴里三國會商試案을 基礎로 實質上 伊太利政府의 行政管理를 認定하는 空氣가 漸次로 濃化하고잇슴에 對하야는 不少한 不滿을 품고잇다 그中에도 反對의 急先鋒은 軍事當局으로 少壯派의 意見을 綜合하면 다음과갓다

一、에디오피아政府는 巴里三國會商試案으로서 傳하는 英國政府의 이라크에 關한 組織 및 에디오피아에對한 伊太利政府의 保護權을 確立함에는 絶對反對이다

一、同時에 일즉 잘領域에서 行한것과 同樣으로 에디오피아에 國際警察을 設置하고 에디오피아의 行政을 英國、伊太利兩國士官의 指揮管理下에 둘것이라는 라발案에 對하야도 에디오피아의 主權을 侵害하는것으로서 許容할수업다

但 一方保守派의先鋒幹部級은 幾分間 此와 見解를달리하야 皇帝하일레·셀라시아一世가 各地會長의 承認을 엇는以上에는 國際警察制度도 반드시 排斥치안는다 伊太利의 軍事的 占領乃至 그政治的 制肘를甘受함보담 차라리 國際警察의 監督을 밧는것이 낫다고보고잇다

一、그리고 全體的으로 聯盟의 平和工作에對하야는 顯著히悲觀的見解가强하다 伊太利政府는 五人委員會의 事業에 全然 期待를 두지안코 또 聯盟의 決定如何에 不拘하고 行動의 自由를 確保하는旨를 機會잇는대로 强調하고잇고 더욱이 아디스아바바駐箚 伊太利公使뷘치[百]은 理事會가 平和解決方法의審議中임에 不拘하고 에디오피아各地駐在 自國領事의 撤退를 決定한것과如한 重大한 政治的行動에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잇다

同時作은 一切拒否하고잇스며 此等委任統治領은 急激히 植民地 乃至 保護領으로 化하고잇는것이다

軍事的占領으로 政治的支配確立

單獨的인에國征服强行力說

파시스트機關紙社說

【羅馬七日發聯合】國際警察隊常設案 英、佛、伊、에四國條約締結案이 英佛兩國으로부터 에디오피아에 和協試案으로 提出되엿다고 傳하는데 伊太利側은依然 單獨으로 邁進하고잇다 七日 맛시스트 機關紙 포포로데이탈리아紙는 左와如한 社說을揭載하야 자못 注目을 끌엇다

一、英佛兩國은 聯盟을通하야集團的斡旋에 依하야 에디오피아內政改革案을 提案하엿는데 이것은 합법으로 問題를 紛糾케하는것이다

에디오피아에 關하야 何等協定이 成立될것이라고하면 그協定은 적어도 左의 諸點을 明確히 承認한것이 아니면 안된다

一、에디오피아의 軍事的 占領에 依한 政治的 支配確立

一、에디오피아 軍隊의 解散

主權國에 對하야 軍事的 占領을 行한것은 일즉 그러한 例는적지안타 即 英國은 일즉 埃及을占領한 英佛兩國은 委任統治領에 對하야 國際聯盟으로부터 統治를 委任하여 옴에도 不拘하고 他國과의共

◇伊에紛爭審議의聯盟理事會

지난八月八日에열녓든 聯盟理事會의情景이니 中央이 리트비노프氏 그左가 라발佛首相、아로이지伊代表 (리트비노프氏로부터 右로二人째)이든英代表

後任遞相問題中心 內閣抗爭如實反映

首相의無力暴露、兼攝으로當面塗糊

今後의推移極히注目

【電通東京電話】床次遞相急逝에 伴하는 後任遞相의人選은 閣內諸派의勢力抗爭을 如實히 反映하는一方 岡田首相의 無力無能한것을 遺憾업시暴露하야 마츰내 八日中에는 何等決定을보지못하고 遞相一人도 決定치못한다는 非難은 甘受하지안흘수업는 苦境에陷하야 爲先首相의兼攝으로써 當面을 糊塗하엿는데 벌서부터現內閣은 末期的現象을 呈할수밧게업시되엿다 即 八日朝 遞相危篤이라는報道가傳하자 後藤內相 內田鐵相等은 八日早朝부터 首相官邸에 會合하야 民政方面으로부터 猛烈한 後任推薦運動이 잇슬것을 豫想하고 機先을制하야 種種畫策을 行하엿다 이미閣內情勢가 穩當치안흔것을 察知한 岡田首相은 町田商相의長老的立場을 尊重하는데서 民政黨側의 意向을 探索하면서 가장愼重한態度로써 이에 臨하엿다 一方 內田鐵相 山崎農相等은 閣內에잇서서 民政黨側의 勢力擴張은 將來自己의 政治的立場에 及할影響이 甚大한것을 憂慮하고 自派의長老望月圭介氏를 極力推薦하며 後藤內相도 亦是軍部、官僚方面의 意向을付度하야 現內閣이 一方的으로 民政黨의 色彩를 濃厚하게하는것은 擧國一致를目的하는 現內閣의 組閣精神에 背馳되는것이라하야 民政黨에 當할 目的으로 八日朝부터 實로 十時間에 亘하야 岡田首相의 心境을 움직이기에 努力을 傾注하엿다 그보다 압서 果然 遞相逝去와함께 町田總裁로부터 民政黨의 總意로 後任遞相은 반드시 與黨的立場에잇는 民政黨에서 起用할것이라고 强硬히 申請한일이 잇섯스므로 首相도 雙方의 틈에끼여 裁斷에 彷徨한結果 拖延性의 裁斷을 下하는것이 不可한것을 알고 드되어 雙方의 中間을 取하야 苦肉策으로 首相兼攝에 依하야 內閣不統一의 危機를 겨우 背馳되는것이라하야 望月圭介氏 우花한만큼 今後 內閣의 暗鬪는 政界各方面의 策動과 並行하야 자못微妙한 推移를 展開하야 岡田首相의 政治的手腕은 더욱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을맛게되엿다 (寫眞은 岡田首相)

後任遞相은爲先 首相兼攝으로決定

九日午前中에親任式

【東京電話聯合】床次遞相逝去에 伴하는 後任에對하야 閣內에서 意見一致되엿슴으로 岡田首相이 兼攝하기로 決定하고 首相은八日御用邸에 伺候 天皇陛下께拜謁하고 內奏御裁可를 仰한結果 九日午前中에 左와如히 親任式을擧行키로되엿다

內閣總理大臣 從二位勳一等功三級 岡田啓介

兼任遞信大臣

◇…町田商相談

兼攝은一時的이오 數日中專任決定

【電通東京電話】八日午後 岡田首相과 會見한後 町田商相은 牛込自邸에서 자못 조치못한 顔色으로 左와如히 말하엿다

今日은 아무것도 決定치못하엿다 그러나 國務大臣의 椅子는 一日이라도 비여둘수업슴으로 爲先 一時首相이 兼攝하게된것이다 岡田氏의 말로는 勿論 훌륭한 床次氏의 後인만큼 그後任에 對하여는 急히 決定지안트라도조타 愼重히 생각하야 가장 훌륭한 人物이 出馬하여주기를바란다 그리고 各閣僚도 充分考慮하여주기를바란다 勿論 自己로도 여러가지로 말하엿스나 그려케된다고하면 한번더 생각해볼 必要가잇슬것이다 그러나 될수잇는데로 急히 專任遞相을 設置하기를바란다고하엿으니 될수잇스면 一兩日中에 本格的으로 決定되리라고 思한다

閣內의意見對立 前途에重大暗影

首相兼攝決定까지의經緯

【東京電話聯合】床次遞相逝去에 伴하는 後任問題에 對하야 岡田首相은 最初 望月圭介氏를拔擢할意向이엇스며 內田鐵相、山崎農相等도 望月氏를 推薦하엿스나 町田民政黨總裁는 組閣當時와 事情이 다르다는 理由로 望月氏의 遞相에 反對하야 黨內의 意向을 綜合하야 後任遞相에 川崎卓吉氏를 推薦하게 되엿다

床次遞相急逝로 第三黨勢力解消

政民抗爭더욱激化乎

【電通東京電話】床次遞相이 急逝한것은 氏가 政界에 重要한 存在이엿든만큼 今後政界動向에 相當히 큰影響을 波及하리라고 觀測된다 即 政友會가 現內閣에對하야 非常한 反感을 갓고 充分히倒閣의意思를갓고 잇스면서도 恒常黨의一致結束이 實現되지못하야 그目的을 達成하지못하엿든것은 黨內에 厭然한 床次勢力이 膨脹하야 이를牽制하고 잇섯기때문이다 그러나 床次氏逝後는 그中心勢力을 일허 그勢力은 分散되여 從來每事에 床次派에 好意를 보내여 鈴木總裁와 黨首腦部의 意圖를 牽制하고잇든 舊政友系도 그態度를 變改하야 黨中心의 行動을 取할수밧게 업게된다 그結果 黨內結束이 强化되고 政府에對한 迫擊力도 增大할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이情勢로보면 來議會에잇서서 政友는 勢頭에 現內閣에對한 不信任案을 提出하야 雌雄을 決할것도 明瞭하고 一方 次期政權을 目標로 床次氏가 中心이되여 畫策하든 所謂第三黨(新黨俱樂部)도 大蹉跌을 招來하야 結局政民兩派의野黨與黨의 色彩가 益益明白하게되여 그抗爭도一層激化될것이다

政友會服屬?

盟主일흔床次系

【東京電話聯合】床次遞相의急逝로 政友會內의 床次系는 크게狼狽하야 目下對策을 講究하고잇는데 床次系의諸氏는 政友會內에 잇스면서 相常 岡田內閣의 三閣僚와 暗默裡에 握手하고現內閣을 支持하는 態度를 取하야 黨內로부터 異端者의 取扱을 밧고잇든바 同氏가 病沒한 以上 今後 山崎、內田兩相과握手하여 가리라고 觀測되나 그關係는 자못 務한바 床次系의 諸氏는 結局本心에서 政友會에 歸屬할수밧게 업스리라고 觀測된다

首相兼攝에 高橋藏相은不滿

【東京電話聯合】岡田首相은 首相自身이 遞相을 決定할수업서 드되어 兼攝하기로되엿슴으로 首相自身이 高橋藏相에對하야 電話로 右의 事情을 說明한데 對하야 藏相은 甚히 不滿스러운 답이엇다 라고 兼攝에不滿한 뜻을 漏洩하엿다한다

床次遞相의急逝를 닷고 聯盟兩派의態度는...

(Continuation) 床次遞相이 急逝하엿다는報가 나자 民政黨으로부터 入閣하는 途에 一大暗影을 던지는것이라 注目되여잇다 ... 內田、山崎兩相이 고 보나 民政黨에 當할 目的으로 强히 反對하게되엿슴으로 드듸여 專任遞相은 暫時事態의 推移를보아 決定하기로되엿다 岡田首相의 兼攝으로 決定되엿스나 如斯히 遞信大臣의 後任決定에 對하야 民政黨과 內田、山崎兩相等의 政友會除名派와 對立抗爭을 招來하야 드되여 專任遞相을 決定하지못한것은 岡田內閣의前途에 一大暗影을 던지는것이라 注目되여잇다

膨大한明年豫算 總額二十八億圓

財務當局防止에必死

【電通東京電話】各省으로부터 豫想되는 明年度豫算編成에 對하야 岡田首相 高橋藏相은 始終悲壯한 決意로서 이에當하야 國際情勢와對滿政策의 遂行上 飛躍的으로高騰하고잇는 國防豫算과 連年赤字公債增大에 依하야 歲計上의苦境에 서잇스므로 이것의圓滿解決의 方途를 發見하려고 자못苦慮를거듭하고잇던바 當該 高橋藏相도七日 葉山으로부터 歸東하엿스므로 來十日前後岡田首相과 會見하고 重要協議를 遂한後 드듸어 財務當局을 鞭撻하야 各省豫算에 對한 査定의 大斧를 加하기로 되엇다 即 明年度의 要求豫算은 未提出分을 加하야 陸海軍各七億圓을 筆頭로 合計二十八億餘에 達하고 新規要求만으로도 十一億五千萬의 巨額에 達하야 이것을 十年度豫算二十一億二千萬圓에 比하면 甚한 懸隔이 잇는터로 高橋藏相의 老練한 手腕으로써도 健全財政의 意義를 果然 발휘할수잇슬는지 極히 疑問視되게 되엇다 그리고 例年政府가 十一月末까지 復活要求를 繼續한 政治的紛爭에 困惑을當하므로 岡田首相은 十一月初旬의 陸軍大演習前에 最後的決定을 하려고 去九日의 定例閣議席에서 各閣僚를 督勵한바이엇는데 以上의 數字와 明年度赤字公債發行總額은 自然增收一億圓을 目標로 昭和十年度豫算에서보담 遞減시키라고 財務當局에 指示한 方針이 首相의注文대로 圓滿히 落着될는지 거의 困難視되므로 最後의 場面에서 자못 緊迫한 場面이 展開될것으로 보인다

話題解說

國際警察隊

◇伊에紛爭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開催된 聯盟理事會는 三日에 再開되엿스나 兩國代表의 態度가 强硬한 타이지 聯盟自體의 無能力한所以인지 何如튼妥協點을 發見치못하고 마침내 五國委員을 任命하야 紛爭解決의 具體案을 兼討케하엿다는 것은 最近通信이 報道하는바이어니와 右委員會의 一員인 라발佛首相은 劃策으로 ...

◇國際警察隊는 國際間의 平和가 侵犯될時 一種의 警察的行動을 取하야 武力衝突을 防止하고 各國의 安全을 保障하며 平和를維持한다는 現代國際政治의 一個理想이다 例하면 一國內에잇서서는 一般으로 警察隊를 保하나 國家와國家間에는 存在하야 國民의 生活을 保하는 이와가튼 制度가업슴으로 國家와 國家間의 威와危險이 ... 이만한 世界平和、國際政治

◇國際警察隊는 國際間의 危機를 調停키爲하야 國際聯盟으로 構成된 國際警察隊를 組織하야 紛爭의 ... 에網治安에寄與케하라는 案을提出하엿다한다

◇政府에 作하야 ... 되고 安全保障條約이 締結되여 侵略을 禁하나 그러나 不法한 侵略國에 對하야 制裁를 加할만한 强制力이 업스므로 이러한 不和機構는 完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國際警察隊의 現實은 ... 一九三二年 ... 以來 軍縮會議에 ... 佛國全權 ... 다른 ... 가 國際警察隊의 案을 提出하야 ... 로 하엿스나 그러나 이것은 國際政治의 理想에 지나지못한다

◇그러나 今回伊에紛爭解決에 잇서서 라발首相의 提案과가치 伊太利軍을 主體로한 國際警察隊를 組織하야 에디오피아의 治安을 維持케하는것이 곳 ... 이는 한 ... 國家의 軍隊로서 組織한다면 ... 伊太利의 ... 에 참가하라 ... 하는 ... 과 가튼 危險이 잇는것이다

滿洲國大觀艦式

盛大하게擧行 九日松花江上서

【哈爾賓九日發】滿洲國江防艦隊의 大典記念觀艦式은 滿洲國皇帝陛下의 親臨으로 九日午前 松花江에서 盛大히 擧行되엿다

聯盟總會 九日부터遂開催

壽府空氣緊張

에國作戰이注目處

【電通쥬네브八日發】九日부터 一週間쥬네브에서 開催되게되는바 加盟五十四國代表는 이미 쥬네브에 到着하얏다 九日午前十時半부터 議長副議長의 選擧로 始作하야 議事에 드러가게되엿다 議題는 十數項中 一般的으로 關心을 끌게되는것은 一、蘇聯邦、墨西哥、체코슬로바키아의 三非常任理事國의 任期終了에 伴한 改選 一、海牙國際司法裁判所裁判長安達峰一郞博士逝去에 伴한 判事補缺選擧 一、交戰國에對한 武器軍需品의 輸入禁止의 三項目인데 目下理事會에서 伊에紛爭問題를 提訴하고잇는 에디오피아는 생각잇스면 總會開催中을 利用하야 十五條를 總會에 提訴하야 審議를 要求할수도 잇슴으로 推移如何에 依하야는 에디오피아는 이 作戰을 取할는지도 모를것으로 觀測되는 다 또 日本의 關係事項인 國際司法裁判所判事의 選擧에 對하여는 都駐佛大使長岡春一博士가 가장 有力하고 各國의 推薦을 밧고잇슴으로 同博士의 當選은 確定的으로 보게되엿다

호아英外相 壽府到着

態度一層硬化期待

【電通쥬네브八日發】英國外相호어氏는 八日午後 쥬네브에 到着하야 이드代表와 會見하고 伊에紛爭에 關한 理事會의 經過를 聽取하엿는데 外相은 이드代表에對하야 同氏가 取하여온 方針을 完全支持한다는 旨의 內閣의 의 메세지를 傳達하엿슴으로 英代表部의 對伊態度는 一層强化하리라고 觀測된다

人事·集會

▲池田政敏氏(新任總督府秘書官) 十一日午後三時廿分 京城驛着 來任

▲龜井秀雄氏(日蘇通信社)滿洲視察歸途入京 數日滯在豫定

▲朴相雲氏(本社監査役)八日夕入京 府商館旅館投宿

八面鋒

◇床次一去後 遞相人자리를 에워싸고、政友脫黨派、民政黨、官僚派가 서로다툰다。

◇後妻人자리로는 相當하지만은 흙아비首相이 장가를 아니들겟다고 兼攝하는데야 奈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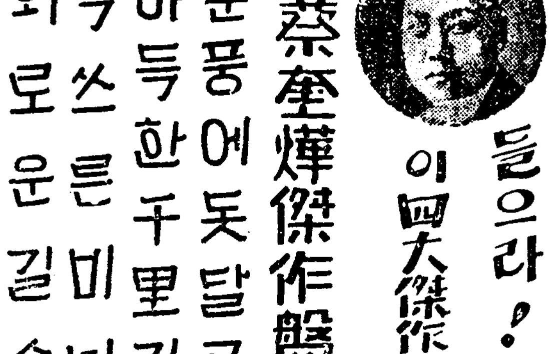
◇民政은 唯一한 與黨이니 반드시 民政에서 大臣을 推薦하게다고。

◇國政을 支持함이아니라 大臣椅子를 支持한다는말갓다。

◇二十八億의 彪大한 豫算査定을 압두고 遞相問題로 말성을 만케하기도 어려운일。

◇게다가 高橋藏相이 不快를듯 긴다하니 東京政界도 明朗한 秋天과는 反對로군。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安國町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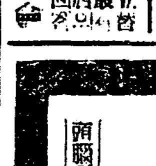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스푸링사도루 類似品이잇슴으로商標에注意 輕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슴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들으라! 이四大傑作盤!! 蔡奎燁傑作盤 순풍에돗달고 아득한千里길 녹쓰른비듸 외로운길손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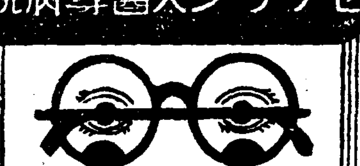
恩給 貸出 長期低利로 他에比較치못할 利息과 信用은 弊店의特色이오니 照會하시압 京城府校洞一六〇 鄭商會

萬花堂 電光二〇九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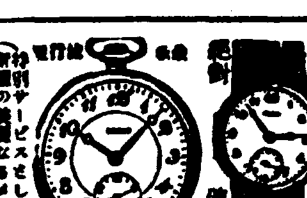
結婚 今般萬花堂에서는 大擴張하야 今春부터 結婚式場을 新築하고 各種의 結婚式具一切를 貸與하고 있음니다 萬花堂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



胃腸의藥奔都


セブラシス醫專病院 眼科 京城驛前 電本四七〇 檢眼 本校眼科敎授 本院眼科長 擔任

商報進呈 品質保證 染料 원료물감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番 振替京城八〇四番


十五ケ年保證附 クローム側時計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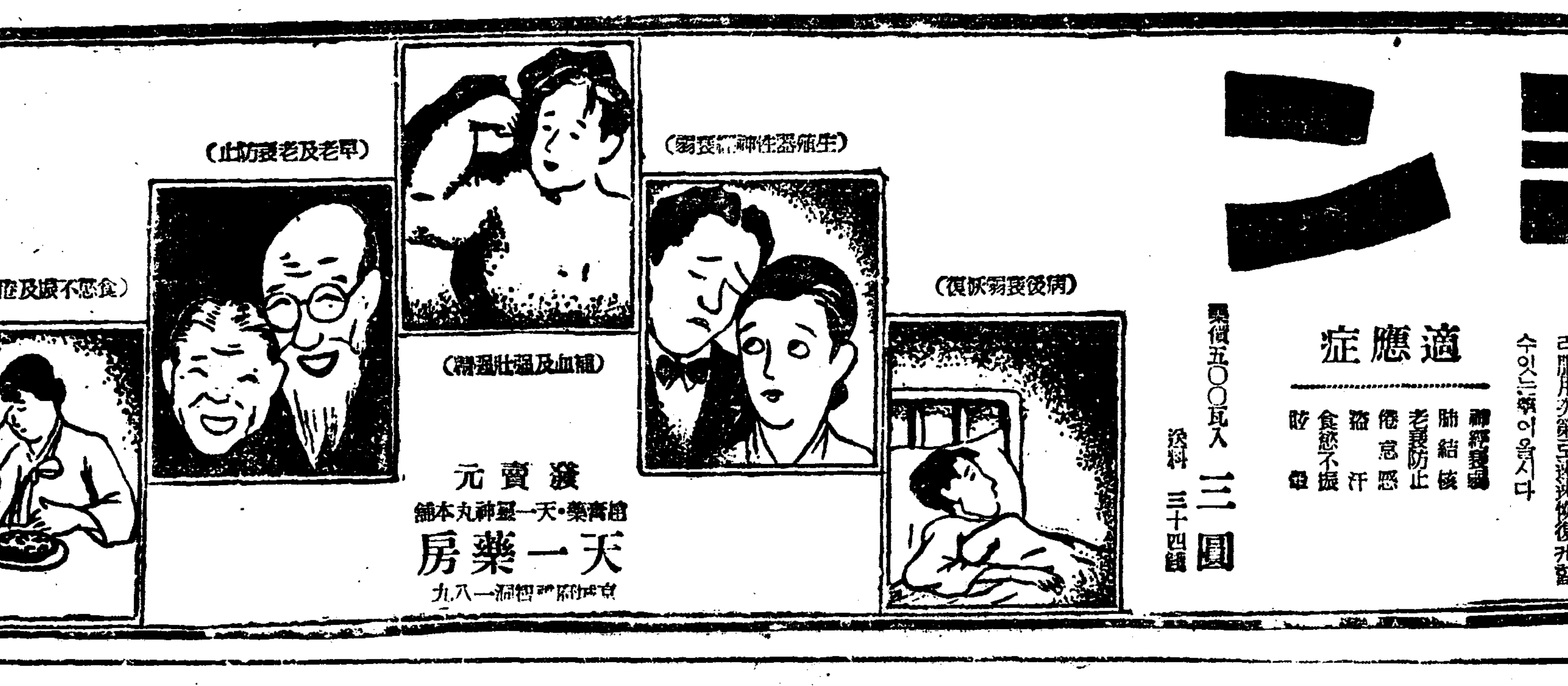
朝鮮의代表藥 補血强壯新藥 クロミン

四大醫學博士의推奬 水原道立病院外科科長 醫學博士 金河植 先生 朝鮮藥學硏究會長 醫學博士 朴昌薰 先生 醫學博士 申弼浩 先生 醫學博士 任明宰 先生

絶對健康法 如何한病이든지 人에게가장缺乏되는要素가 무엇이냐!! 하는것을알때에는 먼저缺乏된成分을補給함에 依하야其病을速히恢復케할 수잇다는것은다시말할必要가업습니다 生殖器性神經衰弱으로苦痛하시는분이시면其原因이어대잇는것을醫師以上으로더 잘아실것입니다 本「크로민」은自己의性的衰弱을感하시는분이시면 반다시服用하야其卓效를엇게되는六味湯을新藥化하얏슬뿐아니라特殊强壯劑及性機能을助長하는高貴한「호르몬」劑等을綜合하야配伍製劑한新藥이올시다 我朝鮮人習性의가장適合한藥이오또한永續性이豊富할뿐아니라生殖器神經衰弱及早老에가장큰原因인性「호르몬」缺乏症에榮養素이라服用次第로速效恢復케할수잇는藥이올시다

適應症 神經衰弱 肺結核 老衰防止 倦怠感 盜汗 食慾不振 貧血 眩暈 等

定價五〇瓦入 三圓 送料 三十四錢



發賣元 天一藥房 京城府鍾路二丁目八一九 總本舖 天一藥房

颱風全南으로陸上
南海一帶風浪激甚
九日正午慶南通過、被害不少
關釜連絡船繼續缺航

팔일아츰에 제주도(濟州島)의 서쪽에잇든 맹렬한 태풍(颱風)은 그날정오가 조금지나서 그진로를 북동(北東)으로 변하야 목포와 제주의사이(木浦、濟州間)를 통과하야 구일새벽에는 전라남도의 남서안(南西岸)에 상륙하야 오전여섯시에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두 도계(道界)부근에잇서 동북동으로 진행하고잇는데 륙지로 올라온다음 그세력이 크게쇠하야저서 그중심시도가 칠백사십이밀리(粍)로보이고잇다 이까닭에 남부조선과 조선해협(朝鮮海峽)과 하관(下關) 구주(九州)등에는폭풍우가강하고 해상은 풍파가놉하서 관부련락선(關釜連絡船)이 팔일부터 결항되고 삼남등지에는 농작、건물 선박등에 피해가상당히만흔모양이다 이태풍은 구일오전중에 경상남도를통과하야 정오경에는 일본해에들어가다 천후는 점차회복될터이나 하관과 부산간해협에는 풍파가심할모양이라고 경성측후소에서는 발표하얏다

農作物의被害가莫大

【進永支局特電】팔일부터 구일새벽까지 폭풍우가 몹시심하야 도처에 집웅이 날르고 베는 전부쓰러저서 풍년이라든말은 꿈과가티살어저서 농가에서는 여간근심하는 바가아니다 오늘도 아직(오전열시)비가계속하야 내리는중이다

兩日間缺航으로 釜山滯客千數百
管內學校休校電命
暴風의萬一을念慮한道當局

【釜山支局電話】칠일오전 열한시경부터 경상남도 일대에는강한바람이 불기시작하야 차츰풍세가강하야 지드니 팔일밤자정부터는 풍속 이십미돌의강도를 보엿다 이와가티 강한폭풍은구일오전 열한시반경까지불고 정오경에는 태풍이 경남을통과하야 바람도자기시작하엿는데 비가 바람의뒤를이어 오는중이다 이까닭에 부산하관간의 련락선은 팔일오후열한시반에 부산을 떠날 경복환(景福丸)이 결항(缺航)함을 비롯하야 구일오전열한시반 부산에드러올 련락선 창경환(昌慶丸)과 동일오전열한시반 부산을떠날 경복환도 결항하얏고 이날밤 여섯시반에 부산에드러올 련락선도 못오게되고오후 열한시반에 부산을떠날 련락선도 모다미정중에 잇다이와가티 여러날련락선의 결항으로부산에는 방금밀린 려객이일천삼백명이나 되야 려관이란려관은모조리 만원으로 방금복가치는 혼잡중에잇다 비온후량은 구일오전 열시까지에 오십이「미리」의 만흔우량을 보엿고한편 경상남도 학무과에서는 구일오전아홉시반경에 관내각 학교에 통첩을 발하야태풍이 심하니각 학교는 휴학을하라고 하얏다

一日五十錢式 李洙倬補償
九年間에千四百餘圓計算

살부의 혐의로 십년간 미결의 철창에억매어 사형을밧기 다섯번이요 그최후인 여섯번째에무죄로 백방이되야 소설이상의 홍미를세상에 남긴 리수탁(李洙倬)은 사건이후 만원가운 형사보상금을 고등법원에 청구하여 다시한번 세상의 호기심을 자극한바 잇섯거니와 이사건은 그동안 동법원에서 심의를 거듭하든중 구월부로 최후의 결정을보게되엿다 그런데 리수탁이 보상금을 청구하기는 자기는구금당시까지 백만장자의 독자로 그생활 지원등이 상당하엿섯스니 매일 삼원씩 계산하야 구천여원을 청구하엿섯스나 동법원에서는 청구한 륙분지일인오십전씩으로 계산하야 일천사백칠십륙원을보상하게되엿다

禹、沈兩氏特志

【清安】괴산군 사리면 사담리(槐山郡沙梨面沙潭里)우종건(禹鍾乾) 심상보(沈相輔)량씨는 이번간사리사방공사장에서 로동하여 호구하는형편인데 다년문제되든본면 공보교를 건축함에 겸하야 이학급을 삼학급으로 증설운동중인데 전기씨는 피땀으로 모은 저금전부를 희사하엿다는바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兒童의近視激增은 鉛筆에關係至大
심이 구든것을 쓰게되는 관계로
薄暮의受驗準備도問題

초등학교의 아동으로서선척적으로 근시안(近視眼)자는 할수업지만 입학당시에는 건전한 시력을 가젓든 아동이 륙개년동안 수학을 하는동안에 점점 시력이 쇠퇴하야 중등학교에 입학하게될때에는 근시안자가되는 아동이 격증한다 즉 문화가 발달되며 체육보다 정신력을 더 만히쓰는일방에 인구의 도시집중현상등에 의하야 도시 아동의 건강이 불건전하여 폐병이나 근시안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되는 관계도잇서 근래에 초등학교 아동의 보건문제로 특히 폐병이나 근시안의 퇴치책은 초등교육상의 중대한 과제로 되어잇다

그리하야 학무국에서는 작년중의 전조선 학생의 근시안상태에대한 조사는 방금집계중이라하야 자세히알수는 업스나근시안의 원인에대하야 전조선적으로 조사한결과는 초등학교우동이 사용하는연필에 그원인이 잇다는것이다 연필심(心)이 구든것이만허 서도 잘보이지안는 관계로 책상우에 업디어서 눈을 종이에 갓가히 대이고 쓰는관계로 자연히 교실에서 자세(姿勢)를 면바르게가지지 못하게되야 여러해동안 이런습관을 계속하는때에는 근시안으로 되는다는것이다 현재각학교의 사용하는연필은 가지각색으로 일정한 우수품을 선택사용함이업슴으로 이러한결과를 나타내이게한다는데 금후는 결국 각학교의지정상점에 연필의 종류를 선태지정케하야 통일적으로 심이 부드럽고 잘씨이는것을 사용케할 방침이라 한다 그러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교육이 심하여 겨울에날이늣도록 밝지못한 교실에서 피로한어린이들이 공부를 하는관계로 근시가되는일도 적지 안흐리라고 보고잇다

運動競技欄

女高普와一高女 決勝戰에對峙
個人成績은女高首位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第三回京城府內 女子中等校秋期리ー그戰第二回는 八日午前九時부터京城運動場庭球『코ー트』에서 열리어다함은 昨報하엿거니와 當日夕刊마감以後의 各校戰績은다음과가트며 優勝候補인京城女高普第一高女 第二高女의三校가三勝一敗로 同率되여 白熱戰을演出한곳헤 女高普軍이 第二高女를 물리치고 四勝一敗、第一高女軍이 進明女高普軍을 이겨서 四勝一敗로 兩軍이同率로 되어 京城女高와 第一高女가 最後의 優勝을 닷투게되엿다 女高普軍이 第一『라운드』에 無難히第一高女의 第一組가第三組를 擊退한後 第三組의 兩軍主將의猛烈한攻防戰이 잇서 四對〇으로 女高普가 敗하고 第二『라운드』에서 女高普金李組가 또四ー二로 惜敗하야 戰勢는 逆轉하야 第三『라운드』까지 가서 女高普4對2로 첫『세트』를 맛칠때에는 審判部에서 日沒로 競技進行을 中止하엿슴으로 第二『세트』로부터 九日午後五時에 京城運動場에서 繼續擧行하기로되엿다 同리ー그의 個人成績에잇서 京城女高普가 一、二等을 獨點하엿고 五等에 同校의 吳、姜組가 入賞되엿다

【第二라운드】
○(金鍾伏 李春卿)4…2(梁福順 李圭潭)×

【淑明】二……三【一女】勝
○(梁福順 李圭潭)4…3(森 顯川)×
○(權玉姬 嚴硏姬)4…3(牧野 江川)×
×(李素貞 鄭世龍)0…4(佐藤 本山)○
(第二라운드)
×(梁福順 李圭潭)3…4(佐藤 本山)○
(第三라운드)
×(權玉姬 嚴硏姬)1…4(佐藤 本山)○

勝【同德】三……二【進明】
○(李姸世 張瓊煥)4…1(申龍姬 鄭鉉淑)×
×(朴順大 金乙仙)1…4(崔順玉 黃玉模)○
○(吳鳳雲 姜鍾宜)4…3(金貞淑 李相烈)×
(第二라운드)
×(李姸世 張瓊煥)2…4(崔順玉 黃玉模)○
(第三라운드)
○(吳鳳雲 姜鍾宜)4…1(崔順玉 黃玉模)×

【淑明】二……三【同德】勝
○(梁福順 李圭潭)4…2(李姸世 張瓊煥)×
×(李素貞 鄭世龍)1…4(吳鳳雲 姜鍾宜)○
○(權玉姬 嚴硏姬)4…1(朴順大 金乙仙)×
(第二라운드)
×(梁福順 李圭潭)3…4(吳鳳雲 姜鍾宜)○
(第三라운드)
×(權玉姬 嚴硏姬)2…4(吳鳳雲 姜鍾宜)○

勝【一女】三……〇【進明】
○(佐藤 本山)4…3(申龍姬 鄭鉉淑)×
○(森 顯川)4…1(崔順玉 黃玉模)×
○(杜野 江川)4…0(金貞順 李相烈)×

【一女】一……三【女高普】勝
○(木村 毛利)4…3(吳東熙 金順姬)×
×(藤本 矢部)3…4(金鍾伏 李春卿)○
×(神保 古賀)3…4(韓貞順 李福淑)○
(第二라운드)
×(木村 毛利)0…4(金鍾伏 李春卿)○

【女高普】【一女】
○(金鍾伏 李春卿)4…0(佐藤 本山)×
○(吳東熙 金順姬)4…2(森 顯川)×
×(韓貞順 李福淑)0…4(牧野 江川)○
(第二라운드)
×(金鍾伏 李春卿)2…4(牧野 江川)○
(第三라운드)
(吳東熙 金順姬)1…0(牧野 江川)

各校個人成績

1 金鍾伏 李春卿(女高)七勝一敗
2 韓貞順 李福淑(女高)五勝一敗
3 神保 古賀(一女)七勝二敗
4 森 顯川(一女)五勝二敗
5 吳鳳雲 姜鍾宜(同德)六勝三敗
6 佐藤 本山(一女)五勝三敗
7 牧野 江川(一女)三勝二敗

各校戰勝率

女子高普	4勝	1敗	〇、八〇〇
第一女高	4	1	〇、八〇〇
同德高普	3	2	〇、六〇〇
第二高女	3	2	〇、六〇〇
淑明高普	1	4	〇、二〇〇
進明高普	0	5	〇、〇〇〇

城大豫科主催 中等蹴球
十四日부터三日間

京城帝大豫科主催의 第六回全朝鮮中等學校 蹴球大會는 來十四、十五、十六의 三日間 淸凉里同校球場에서 擧行될터이라는데 參加申請期는 明十一日까지이며 對陣은 十三日午後四時에 同本에서 抽籤決定할터이라한다

殖銀5A 仁川0

第十二回全朝鮮野球爭霸戰第二日의 殖銀對仁川第二回戰은 八日午後一時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仁川先攻으로開始되엿든바 結局五A對零으로 殖銀勝

仁川 000000000 ─0
殖銀 00011120A ─5A

◇投捕=殖銀(吉本、牧野、佐藤) 仁川(中本、橋口)

釜山13 全州10

全朝鮮野球爭霸戰第二日의釜山對全州第二回戰은 八日午後三時五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釜山先攻으로 開戰되여 結局十三對十으로釜山勝

全州 400105000 ─10
釜山 200103502 ─13

◇投捕=釜山(原田、李四英) 全州(國分、高頭、斧子)

東京六大學野球
明大10 立教3

【東京電話聯合】六大學野球리ー그第二日 明大立教第二回戰은八日午後零時五分부터 明大先攻으로 開始、結局十對三으로 明大勝

立教 100000020 ─3
明大 214020100 ─10

法政對東大無勝負

【電通東京電話】東京大學野球리ー그法帝二回戰은 八日午後二時四十五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法政先攻으로 開始한바 接戰十四回에 日沒로 四對四無勝負로마치엇다 閉戰五時五十五分

◇投捕=法政─伊藤 藤田 帝大─久保田 綠川

京畿神競庭球豫選

朝鮮神競庭球 京畿道豫選은 八日午前十時부터 京畿道廳『코ー트』에서열린바 그戰績은 다음과가트며 神競大會에出場할팀은 當日決勝에드러간 朴、李兩組와 京畿의閔丙琮、崔炳宙組가 決定되엿다한다

(第一回戰)
○東京(李仁俊 李正用)4…2東京(高乙會 金振玉)×
○畿京(申鍾俊 金)4…1畿京(池得成 孫麟)×
(準決勝戰)
○東京(李仁俊 李正用)4…2畿京(申鍾俊 金)×
○東京(朴奇元 咸炳文)4…3畿京(閔丙琮 崔炳宙)×
(決勝戰)
○東京(朴奇元 咸炳文)……棄東京(李仁俊 李正用)×

松の實キャラメル

府廳2A 平實1

全朝鮮野球爭霸戰 第三日의 京城府廳對 平實第二回戰은 九日午後一時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平實先攻으로 開戰되여二A對一로 府廳軍勝

平實 000000001 ─1
府廳 20000000A ─2A

◇投捕=府廳(鄭·崔仲乙) 平實(朴賢明·本松)

親父母를打殺한 稀聞의悖子公判
병들고 빈한에 못이겨 죽엿다고
三審에서도死刑求刑

가난에 쪼들려 부모를 데리고 이주하는 도중에 모진마음을 먹고돌멩이로 때려죽인 자식에대한 상고공판=제주도우면도평리(濟州島右面道坪里)김문경(金文京)(三○)은 소화팔년십이월이십삼일 가난한 살림을 타개할길을 어드러 전기주소로 부터 제주읍으로 그부친과 모친을 다리고 드러오든중 서죽면(西竹面) 한천(漢川)이라는 연못엽헤 다다렀슬때에 때마츰 모지게부는바람과 눈에길가기가 곤란하야 부근 바위밋헤으로 일시피신을하엿스나 늙고병든 부친김원백(金元伯)은 평소에 고민한든 해소병으로 기침을하고 모친김씨(金氏)는 복통을 일으켜 쓰러지며 진퇴양난중에 다다른 김문경은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일시 모진마음을 먹고 무게일관이나되는 돌을 드러다가 무참히도 한자리에서 부모를 박살한후 자기혼자만그곳을 버서저 나왓다이 사건이 발각되어 김문경은 대구 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의 언도를 바덧섯든데 그에 불복하고경성고등법원에상고하엿고 도검사로부터는형이경하다는것으로 역시 상고를 하엿든데 구일 오명(玉名)검사 립회아래 개정되어 사실심리를 마치엇는데 다음공판은아직미정이다

自動車內엔 라듸오嚴禁

『라듸오』는 가정으로부터 가두에진출하야 최근에는『택시』와『뻐스』안에도 승객을 위안코저『라듸오』를 설치하게되엿는데자동차안에『라듸오』를 설치하는것은 그러지안허도 교통사고가만흔이때에 더만히 사고를비저낼염려가잇다하야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절대로이것을 허가치안홀방침이라한다

釜山放送局 廿一日開局

부산방송국(釜山放送局)에서는오는 이십일일 오후한시부터 부산공회당(公會堂)에서 개국식을 거행할터인데 정상(井上)체신국장、유하(有賀)조선방송협회부총재、보판(保坂)동리사장 기타 림석하리라는데 개국식당일부터 삼일간 개국긔념축하방송(開局記念祝賀放送)『푸로』를편성하야 대대적으로 축복하리라한다

颱風一過、金風一蕭瑟 …금일 교외에서…

節候는白露인데 때아닌苦熱地獄
昨日氣溫三三度平年보다七度高
今日부터는서늘하다

남조선에서는 남양의 말괄량이 밤문재 태풍이작난을 하는사이 경성지방을 중심으로한 중부일대에는 팔일에돌연히 혹독한더위가엄습하야 괴후(怪候)를보엿다 즉팔일은 절긔로 백로(白露)이고 팔월추석은 삼사일밧게아니남긴때여서 아츰저녁으로 선선한긔운이 제법긷흘 때엿스나 갑작이 긔온(氣溫)이 올라가서 이날밤의 최고온도 삼십삼도와 최저온도 이십사도 구분을보여 고온으로는 평년보다 륙도삼분의고도를 보엿고 작년보다는칠도삼분의 고도를보엿스며 저온으로는 평년보다 칠도 구분의 고도를보이고 작년보다는 칠도삼분의 고도를보이고잇서 보름이면 한로(寒露)이고 한달이면 상강(霜降)이어서 느낄가을도머지아니한 이때에 근년에 볼수업든 더위를보여 서울사람들을아연(啞然)케하얏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날이 버서지며 서풍이 불어 서늘하여진다

朴綠珠等五名 今日遂送局
아편밀매를 하든기생들
名唱名妓의이末路

화류계의 천국에서 지옥으로일조에 굴러떠러지는 밤의천사들ー몸에는 능라를감고 일홈은명창의 줄에 올랏스되 부자연한향락의 극치를 탐구하여 마약아편을 빨고 그것이 공리주의를 겸한 색기처서 아편밀매까지를 겸한 최근 종로경찰서에 검거된 아편사건의 관게자 신금홍(申錦紅)리금홍(李錦紅) 김여란(金如蘭)하농주(河弄珠)박록주(朴綠珠)등 다섯명은 그동안 취조가 끗나 일건서류와 한가지로 구일 오전열한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엿다

金銀다음에는 人絹의密輸
最近多量으로密輸出
전자에는 밀수입이 되든것

만주국이 생긴이후 면포(綿布) 지금(地金)가타 각종 약품등이 신의주(新義州)로부터 안동현(安東縣)을거처 만주에 로골적으로 밀수출이 성행되든시대를 지내어 일시는 만주로부터 은괴(銀塊)를 신의주에 밀수입하여다가 동경 대판(大阪)을거처 미국으로 평장히 수송하든바 최근은 시세의 폭락에따라 큰리익이업게되자 국경밀수도시에 새로등장(登場)한것은 인조견직물(人造絹織物)이라한다 최근에밀수출의 대상물이 인견으로급거히 전향을하야구월에드러서는 신의주에서압록강을 건너다가 매일안동우편국에서 소포로봉천(奉天)방면에발송하는것이 격증하야 하로에사오백필에 달한다고한다 만주국이 생기기전에는 견직물은 물론보통직물은대개 조선측보다 갑이싸서 조선에밀수되든것이 최근에는 이와반대로 조선에서밀수출이 성행되고잇다 그리하야 압록강의면물인 압록강철교를 사이에두고 련접된 도시가튼 신의주와안동현은 국경밀수의도시로 특수한존재가되야 량지의세관과 경찰의 취체가 심함에도불구하고 군소의 밀수출부가 속출하야 밀수는 의연히 평장하다한다

天氣豫報
曇後晴

昨朝濟州島西에잇든 猛烈한颱風은 進路를北東으로轉하야今曉全南에上陸、六時에는 全南慶南의 境界에잇섯스나 그勢力은衰하야 七四二粍로되어가지고 東北東으로 進行中이다 南朝鮮 朝鮮海峽及 九州一帶는 風雨가 甚하고朝鮮의 東岸은雨、西部는曇、滿洲日本은 흐리기쉽읍다

昨日最高 三三、〇
最低 二四、九
今日正午 二八、三

世界制霸를爲한 "올림픽의밤"

開城 今九日午後八時 開城高麗青年會舘 (白券 三十錢 青券 二十錢)

京城 明十日午後七時半 (白券一圓 青券五十錢 學生三十錢) 朝鮮日報社大講堂

主催 東京평킨滑氷俱樂部

大阪高津表門筋

昔も 今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ゑぐすり (시찌후꾸 히에구스리)

效能 上氣를引下하고 便通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효능으로 팔이는

藥價 一週分 三十五錢 二週分 五十錢 送料 十錢 海外 四十錢

本家 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電南七二九

好職業

男女資本不問自宅兼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限◯規則見本進呈 大阪天軌組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及지게미를防止하고、即頭頭、눈섭、수염、脇毛、其他人體毛髮이稀薄한것을빈틈업게하고 微細한毛根이라도 털나는藥フミナイン의效能으로 漸次生長식히요또禿頭病에依하야毛髮이脫落될時其脫落을防止하고또 이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그와갓치 病菌을 殺滅식혀서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적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털어털빠진대●대리꼭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꼭잇슬곳에털업는분……은不必다말고곳使用하라

(全國藥店에잇슴)

毛生藥 후미나인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 代金添付記發賣元에注文하라、即時送藥함

模造品만흠 꼭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二八三二 東京藥院

大阪市南區天王寺 電話天王寺五五五六 振替大阪五八八八番 東京藥院

外務 講習生募集

一、中等學校卒業二十五才以上男子 一、府內에서活動家를望함

講習中에手當을支給함 一、希望者는履歷書를至急送付하시옵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 日本生命保險朝鮮支店督勵部

榮養에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浪花舘 洋劇 新聞

連日滿員御禮 萬讀好評裡に愈愈十一日まで續映

三回興行 時間割 第一回 十一時三十分 第二回 三時十五分 第三回 六時五十分

一、松竹發聲ニュース

二、蒲田超特作花嫁シリーズ オール・トーキー 眼と耳の新聞 北村小松 原作脚色 野村浩將 監督 田中絹代 小林十九二 主演

三、下加茂本年度超大作 オール・トーキー 夢うつつ 大阪、東京朝日新聞連載小說 三上於菟吉原作 伊藤大輔脚色 衣笠貞之助監督 林長二郞一人三役主演 雪之丞變化

優美舘 貫鐵洞 電光三九五

九月九日부터晝夜二回 藝苑座最終公演二日間 金蘇氏努心作品

강그劇 暗黑街 全二幕 名優 徐一星 主演 어대까지痛烈悲壯한男性劇!! 누라서이劇을感激업시對할소냐 朝鮮劇界大波紋을일으킬大巨彈!!

【幕間】 金元浩의新婚夫婦 一景 李福本의새맛노래 一景 獨唱、合唱、名曲、舞踊全部 新놀나울만치燦爛한舞臺裝置 藝苑座名物이막다쏘나저오다

大喜劇 빌어온마누라 一幕二場 물수록可觀!! 腰折할大喜劇!! 萬人을笑殺식힐空前의大喜劇

九月九日부터特別公開 初秋의大映畫를報여드리는 大都映畫特作現代映畫 原作脚色監督……丘虹二

恨嘆의봄 (嘆きの春) 琴糸路主演映畫 中野英治 東大寺一郞 春水 久子 共演

파라마운트社超特級的特作映畫 四枚의날개 共同監督 리챠ー드・아ー렌 포ー이부 크라이브 이록 레 共演

大都超特作時代映畫 待望의名篇第二篇 原作脚色 阿部九州男 監督大伴龍三 主演 名金女難 江戶染の卷 嵐山龍之介 木下 根良隆三郞 東 龍子 共演

大正舘 櫻井町 本局

家庭

병에도요시찰? 전염ㅅ병보균자

─몸은멀정해도균을가진사람들 알코난사람가차히말일

머리ㅅ말

거름보는 아조 건강한듯싶이 푸둥푸둥 쪄고 혈색이 불과하니 조하서 아모렴치 안한것가 튼 분에도불구 병균을 가지고 다니며 이리 저리 허터 놋는 수가 업지를 안습니다. 그 분이야 병균을 가지고 잇서도 병을 알치안 하니 조흘찌 모르오나 그분이 허터 놋는 병균으로 인하야 만흔사람이 생명의 위험을무릅쓰게 되는 것이라 결코옷음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나 알는다면 격리병원으로나 보내지 알치 안는 것을 격리병원에 너허 둘이수 나잇습니다. 대중의 위생상으로 론지한다 하면 그러분은 오히려 전염병환자보담도 떼제미업는 사람이아니오니까?

본래 체질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엇더한 병균이 침입하든지 쉽게 발병이 되지 안키니와 더구나 한번 알어서 면역긔간중에 잇는 사람에게는 그 병균이 재차 침입하더라도 다시 발병되지 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다 남에게만 병균을 매개하기 쉬운 위험인물들이올시다 그뿐더러 한번 전염ㅅ병을 걸리엇다가 나흐면 그속시

병균이다업서지는

것이아니라 체내에 남아잇서 한 뚜달은 고사코 이삼년까지도 게속해 잇는 수가 잇습니다. 이러한 분은 우에서 말한 두종류의 인물보담도 더입층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야 일시일시병균을 매개하게되는데는 그래도 모르지만 아조 병균의 주머니가되야 가지고 그매개의 전문가노릇을 한대서야 긔막힐일이 아니오니까? 물론 자긔로서니

그엇지본의의일이

겟습니까만서도 다른사람의 위생으로 보아서 지극히 유해하고 유독하다는 비난을 엇지면 할수 잇습니까?

×

그럼으로 전염ㅅ병을 알코난 환자는 반듯이 병균의 보존여부를 급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균의보존이 판명된사람들은 자신으로서도 좀더 철저한 주의가 잇기를 청합니다 첫재는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에드나들지

말어야 하고 둘재는 공동변소에도 들어가지 말어야 하고셋재는 모든 집회에도 될수잇는 데까지 피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동시에 자긔집안에 잇서서라도 변소라든지 요강라구통속이라든지 거처하는 방이라든지 팍팍 소독을 해가는것이 조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경성시내에서 병균보존자로 판명된 분은

도합열여덜사람이

랍니다. 경찰당국에서는 그분들의 주소며 행동을 일일히 조사해가는 한편 갓금 그집안의 소독도 시키고 도갓금 불려다가 병균이 아조업서젓나 하고 검사한답니다. 정치적으로 요시찰인물이 잇는줄만 알엇더니 위생상으로도 요시찰인물이 잇는 모양입니다. 물론 위생상 요시찰인물은 병균이 업서지는 날 그뿐이라 해제의 수속은 아조 간단합니다.

×

그러나 적어도 대경성에 병균보존자가

하필열여덜만될리

잇습니까? 경찰당국에서 알지못하는 수효가 실상 안 수효보

안나는『다마네기』

매운냄새

부엌속에서 진찬한중하는 안해가 그러지 안허도 애처러워만 보이는데에 『다마네기』를벗기며 매워서 눈물 흘리는것을 볼때는 남정네의 가슴이 찌어지는듯. 애닯습니다. 냄새안나는 『다마네기』는 업슬까 모든 남정네의 그마한 사정을 펴주기 위하야 미국코ー넬대학의 식물학교수 한스、플리레뉴스ー 박사는 그것을 발견하기에 노력을 다하고 잇섯더랍니다 지금 그는 이미 냄새안나는 호배추의 종자를 맨들어 내노코서 냄새안나는 『다마네기』도 불구해 성공하리라고 자신겨워 자랑하고잇지요. 그뿐이아니라 그는 마늘까지도 냄새안나는 종자를 맨들어 내겟다고 뻐드름다나요 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 독일의 화학재 셈루리씨는 『다마네기』를 연구햇든데 그는 한동이별는다마네기를떠서 [illegible]를 뗏섯답니다. 왜다마네기가매운 냄새를 피우는고 하니 끗 거긔서 향아 내지는 휘발유의 판계랍니다. 그런데 『플리레뉴스ー 박사의 연구로 드른면 그 휘발유 한방울 로서 경성여만한 건물은 서너개나 냄새를 떠든할수 잇다고요. 귀가 막히게 독한냄새도 다 잇나보아요 그러나 다마농이에서 냄새를 업새는동시 그조흔맛까지 버리면 엇처느냐고는 걱정하지 마르십시요. 다심한 플리레뉴스박사 그릴을 잇지안코 잇는 모양입니다.

수 엇지 안습니까? 그거과연 [illegible] 방정을 바라는바게 매어 분들에게는 그 [illegible] 배리가 업습니다

世界文藝童話集

佛國짠·모레아스作

욕심쟁이와샘쟁이 ①

崔秉和

옛날엽이엿습니다. 외갓 낫분 일만하고 지내가는 두사람의 동무가 살고잇섯습니다. 한사람은 이이상것은 업스리라고 생각할만치 되여야지 마음이 풀리는 샘쟁이엿습니다.

다른한사람은 무슨일에든지 이만하면 고만이지하는것을 몰르는 무서운 욕심쟁이엿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엽이엿습니다 이샘쟁이와 욕심쟁이가 말을하고가다가 어느벌판에서 한사람의 성자(聖者)를 맛낫습니다. 그런도 이성자는 무엇이나 속까지 드려다보는 재조를가진사람임으로 두사람이 악한마음을 품고잇는것을알고 잠간동안 두사람과함께 거러가볼냐고 생각하엿습니다.

성자는 두사람의악인과 서로 인사를하고나서는 여러가지 세상이약이를 하면서걸을거려가는 동안에 큰디큰 성당(聖堂)압흐로 지나가게 되엿습니다.

그때 성자는 두사람에게 이가티 말하엿습니다.

『자、나는 이성당으로 가겟스므로 두분을 작별하지아호면안되게되엿습니다. 그런데 잠간동안이라도 친하야진청표로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이든지 가지고 시픈것을 드리겟습니다. 두분중에 누구시든지 먼저소원하시는 것을 말삼하십시요. 즉시 하나 넘어 주시도록 내가기도하야드리지요. 그런데 두분!잡잣코계신 분에게는 말삼하신분의 갑절을 드리지요』

성자는 이러케 말하면서 성당으로 드러가 버리엿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하여간내가먼저 말하여서는 안되겟다。 저놈에게 먼저 소원을 말하게 하고 나는 그갑절을 바다가지지안흐면 안되겟다고 생각하엿습니다. 그래서그는말하엿습니다

※※※※※※ 생선에대한 묘리

푸른빗나는종류는상하기쉽고 담백질만은것은중독되기쉽다

생선살때 주의할것을 말슴하겟습니다。

생선중에도 생선고등어 꽁치 꺾질에 푸른빗치나는것은 썩기가쉬운것입니다。그럼으로 겻호로 보아서는 아모리 빗갈이좃코 생생해보이는것도 속이 썩은것이잇는것이니 무슨생선이든지 푸른빗나는것을 살때에는특히주의하는것이 조습니다。

그리고 담백질(蛋白質)을만히 포함한 생선 말하자면 뱀장어나 방어가튼것이 상한것을 먹으면 중독이 이러 나고 심하면 인명을 빼앗기는 수도잇습니다。『프토마인』 이라는것은 사체에서 나는독인데 이것은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른생선이 아니드래도 게나 새우가튼것은 아침에섯다가 저녁에 상하는수도 잇습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너헛든고기는 그속에서 다소간 용해를해서 연하고 맛이조흔수도잇스나 냉장고에서내여서 외긔를쏘이면 아주 상기가 쉬운것이니까 될수잇는대로 빨리 요리를 작만해서 먹는것이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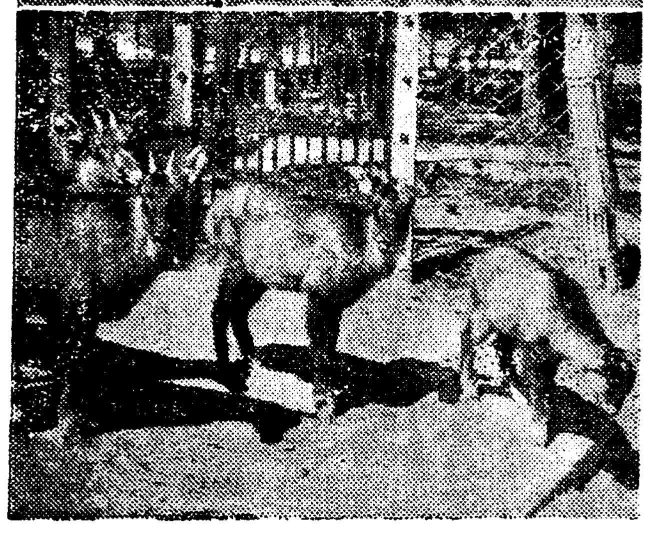
紙上動物園 (7)

네발가진동물중에 사슴만큼날낸동물은 업다고해도 과언이아닐것입니다 호랑이가 번개불처럼 날새다하지만 사슴 종류를 잡아먹을때는 길목을 직히고풀래 숨어잇다가 달려드럿지 제법 다라나는놈을 쫏차가서 물지는못한다는것이 산양ㅅ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슴의 얼골생김새를보면 소와일가간이 되는듯합니다 동물학자들이 큐제유(有蹄類)라해서 소、사슴、염소가튼것을 가튼종류로 처지만 아닌게아니라 그 범통한귀、순하디순한눈、둥그레한 코와입、빨난것까지 소와비슷해서 겨와새우를 사촌간으로 치드시 옛날에쩍 억만년전에는 촌ㅅ수가 가차원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지금와서 아주남처럼되여 소는몸이동통해지고 뿔이조라들고 사슴은 날ㅅ신해지고 뿔이뻐더나게되엿습니다。 세상것이 모도주위환경의 지배를 밧게되는것이 자연의 한법측인즉 먹는음식、거처 생활양식 풍토가 다르면 아모리 가튼자손이라도 퇴화될것은 퇴화되고 진화될것은 진화되여 긴세월이지난뒤에는 결국은 다른모습이되고 말것입니다。

『올림픽』도 귀로 흘리는 창경원의사슴들

산중에잇슬때는즘생중의초특급



이제 소와사슴 그보다도 염소와 사슴의 관계는 그만두고라도 다가튼 사슴종류인 사슴과 노루 산염소(カモシカ)들을 비교해보면 더욱 현저히 먼저 말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현재 창경원안에잇는사슴종류는 다섯가지입니다

◇

만주사슴(滿洲鹿) 만주에서 만히 난다해서 만주사슴이지만 조선서도 함경북도에서납니다。인가가 별로업는 수백리를 연한 길흔산속에서 영양분만흔 풀을 뜨더먹고 제멋대로 뛰어다니든 사슴이라 몸이 웬만한말만큼이나 큽니다。그리고 치운지방에서도 능히 견델수잇게 몸에기름끼가만코 털이길습니다。 녯날그림에보면 사슴이 불로초뜨더먹는것이 잇습니다만 이런사슴은 산삼은 만히 뜨더먹어서몸이 그러케조와젓슬것입니다 (모를소리지만) 이사슴은 동물원에 온지 오래되엿고 오기전까지는 종묘(宗廟)와 창덕궁녀른동산에 노아먹여 기르든것이랍니다。몸이 하도 람스러우니까 작년에독일학ー겐베크동물원에서 사가겟다고햇스나 이쪽에서 팔지안헛다합니다

◇

그다음에 보통우리가 말하는사슴인데 다른종류와 구별하기위하야 조선사슴이라고합니다 어사슴은 전조선 웬만한 큰산에 다잇는데 먹을것이 시원찬으지 비교적 더운지방에서 지나기에 그런지 만주사슴과 모습은가트나 훨신 적습니다 그다음으로노루와 아장(牙獐)이라는것이 잇는데 노루는 누구나 다아는것이고 아장도 노루와 형체가 가르나 엇금니가 빼죽나온것이특색입니다 이런노루 종류를보면 체(이무척 빈약해서 영양부족에나 메ㅅ병에 걸린사람이 작구생각키우게됩니다。

조선안에 업는곳이 업슬만큼흔한동물이요 수효가 만호니마큼 일년에 포수에게 총마저죽는수효도 제일만습니다

◇

산염소(カモシカ)。 사슴종류지만 모습이 사못다릅니다。 검붉은털이 북슬북슬하고 다리가 짧어 그리날셈것 갓지안치만 태산준령의 뻬죽뻬죽한 바위ㅅ돌우으로 기어오르고 뛰어다니는데는아주엄ㅅ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처이며 오닥 사는곳이 그런곳이니까 다른사슴의 다리긴것이 부럽지 안허 이러케된 것이겟지요 이 사슴은 황해도에 잇는 리왕직(李王職)산에 처노은 그물에 일년이면 두세마리식흔으레히 걸려든다 합니다。흔히 시골사람들이 즘생을 사로잡으면 큰돈이생기는줄알고 동물원으로 팔려오는데 이런사슴종류만해도 볼과 몃원、몃십원 밧지도못한다고 하니 올찌갈찌로자도잘안되는 수가 만습니다

◇

지금은 업스나 전까지 사향록(麝香鹿)이란 적고만 노루가 잇섯습니다。황해도가 특산지인데 이름과가리 관연사향이배ㅅ속에 엇는지 업는지는 마치모를일이라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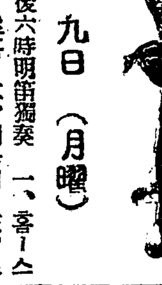
사진설명 맨우의것ー아장、그다음것ー산염소、그다음것ー만주사슴、맨아래ー조선사슴

家庭醫學

부인의림질

문 저는 이십삼세된 여자이온데 삼년전에 어린애까지 나앗섯는데 이전엔남편이 오입을하다가 림질을을마 제게까지전염되여 엄마간 점문의사에게 진찰박고 약을써도 낫지안허 고생이오니 무슨약을쓰면 속히근치될가요 (一苦痛生)

답 부인의림질은 뇨도뿐만이 아니라 대개는 생식긔까지 동시에 침범하니가 약만으로는잘 낫지안습니다. 여러가지 고장이 나기전부인과에 다니면서 완치될때까지 치료를바더야 합니다 당신의남편도 철저히치료를 바더야할것은물론이고 두분이 조래할때까지는 갈거하는것이 조흘것입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晟鎭)



九日(月曜)

◇午後六時明笛獨奏 一、홈ー스위ー트홈 二、파랑새 三、로ー렐라이 四、푸른하늘 五、菊花 六、로젤리ー의세레나ー데 鄭德澗 피아노伴奏 金百洪

◇同六時二五分 産業常識ー스 經濟解說 李吉相

◇同七時三〇分 常識講話 經濟의各種相 盧東奎

◇同八時 流行歌 鮮于一㘝 DK管絃團

一、短歌 二、唱劇調 興夫歌 吳翡翠

◇同九時〇分 連續怪談 黑心(一) 數手 趙相鮮 庾秋岡

十日(火曜)

◇午後〇分五分 맨돌린合奏 一、森林精의춤…핑거랄드作曲 二、나의꿈…비레리作曲 三、질거운海邊의가못트운드作曲 四、盛夏의꿈…리코作曲 五、네그로와춤춘다…山田耕作 作曲 六、지난여름의追憶…살드리作曲 高橋멘돌린…앙상블

◇同二時 衛生講話 結核의豫防과治療(一) 鄭求忠

◇同六時 童謠齊唱 一、수레 二、돌다리 三、고향의봄 四、풍당풍당 五、하모니카 六、꼴목대장 洪蘭坡作曲 七、축주는落葉 八、갈매기 九、제미마종 十、時計노래 十一、섯달그믐 十二、汽車 洪盛裕作曲 中央保育學校生徒 指揮 洪盛裕 伴奏 金元福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無化果 金鎭浩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古蹟愛護日을當하야 嚴昌燮

◇同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寧邊歌 三、방아打鈴 四、梁山道 五、青春歌 六、노래가락 玄山玉 細笛 高敬德 簫 崔壽成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同八時三〇分 齊律 靈山會像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趙敬弼 杖鼓 李章夏

○同九時 連續怪談 黑心(二) 庾秋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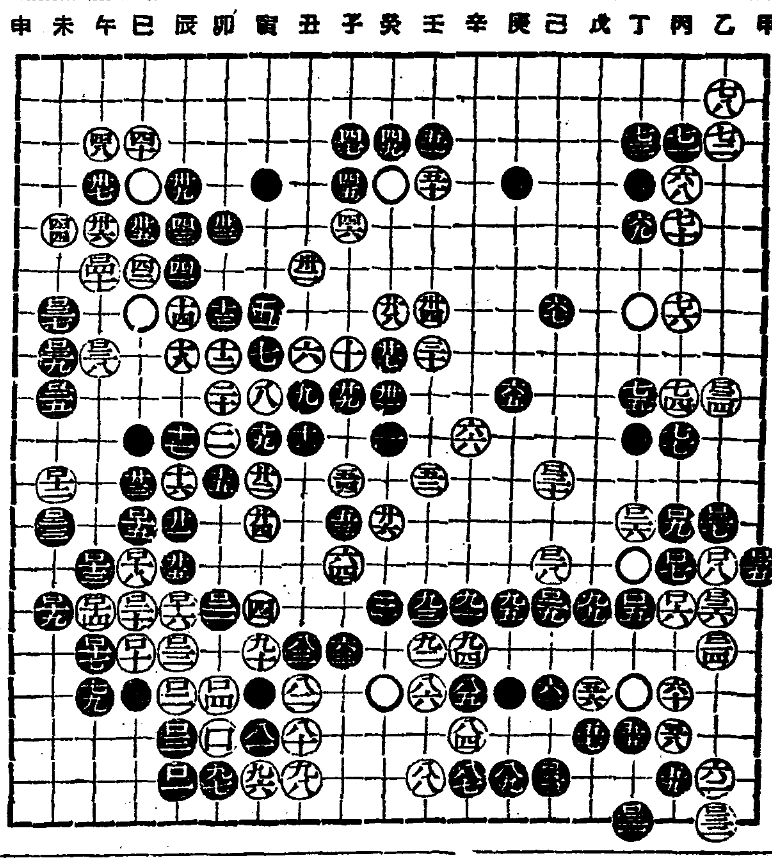
曆 九月十日(火) 舊八月建乙酉(大)十三日 己丑·火·房·定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圍碁對局譜 ─9─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二五】未의九 【○二六】丁의十二 【●二七】乙의十二 【○二八】己의十三 【●二九】己의十四 【○三〇】巳의十一 【●三一】丁의十九 【○三二】乙의十九 【●三三】己의十八 【○三四】乙의九 【●三五】甲의十三 【○三六】乙의十四 【●三七】未의七 【○三八】午의八 【●三九】未의八 【○四〇】午의六

◆蔡極文氏評 白이 丁의 十二로 黑을 應키하고 己의 十三頭點으로 黑을 牽制하니 黑의 十六將區內가 急於圖生이요 丁의 十黑將幷이 亦在未穩하니 白丁의 十二己의 十三十一은 手腕이 優越함을 推測하노라 黑未의 九未의 七은 先手로 白淮角을 縮入하니 是亦能率이라 功不下於白之己의 十三이로다

(本社)(主催)

九月十三日밤七時半 本社大講堂에서

바리톤名歌手 金文輔獨唱會

主催 朝鮮日報社學藝部

會費		
白	券	1·00
青	券	·80
學	生	·50

短篇小說 福順이 (10)

宋影作 熊超畫

점심고동이 뚜ー불기까지、허리끈으로 끙흔배를 졸러매고서 사십관이나 무게가나갈 돌을실은 토록코를 밀고다니기란 어지간히 허리가 부러지도록 압흔 노동이엇다 더구나 오늘은 지난밤을 새우면서 참자속에부어너흔 술때문에 또는 수면부족으로 인하야 현긔ㅅ증이 심할뿐아니라 땅도 노ー라코 하늘도 노ー라케 보이며 이마와 등어리에서는 구슬가튼 기딸이 왼몸을 적실만큼 흘러 내리는 것이엇다. 만일 한시간만 더 점심시간이 머ー럿드면 만돌이는、제아모리 이산골에서 장사소리를 드를망정、너머지지안코는 못백엿슬것이다. 다행히 그가 너머지기전에 점심고동이울엇다.

그는 개천으로 내려가서 팔작구니에서 흘르는 찬물에 세수를하고、입안을 부시고、등어리를 벗고는 찬물로 씻고、그리고 나서 복순이가 황당하게 수건에 싸준 점심벤또를 끌러다. 고등어 군것 한토막 무쪽 두개。 쌀섞긴 조밥。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비로소 지난밤일을 처음서부터 곳까지 생각해볼 마음의 여유를 어덧다. 그러자 문득、허리끈에 붓드러맨 주머니속에 그대로 아모일업시 돈이 드러잇는지、혹 일허버리지나 안헛는지? 하는 의심이 덜컥 이러낫다.

그는 젓가락을 노코、동무들이 보는가、안보는가、전후좌우를 눈치빠르게 살핀다음에 주머니끈을 끌렀다. 착착접은 십원짜리가 상당히 도뭉하게 약각ㅜ기여진채로 그대로 들어잇[illegible]다 겨오 안심햇다는 표정이다

ー내가 잘햇는가? 잘못한일인가 술을 먹이기때문에 뚜가 술에취해서정신모르고 한일은 아니다ー아니다! 이러케하면 복순이가잘되고 나도 성펑이 며고할거래서 내가 도장ー아니다 엇지 손고락 지장을 찍지아니햇노ー!? 그래도 내가 잘못햇슬가? 잘되얏지ー? 그러나이러기옷 저리기옷 생각해보아도 어제나지금이나 그의 정신은 마찬가지요 더심롱하고 밤으롤빗을 보듯기 환하게 해주는 대답은다 오지안는다.

『아모려든 만돌씨가 평생을복순이를더부리고서 사려가겟슴마? 뉘자식에게던지 불가진놈에게 맷겨부릴거시 며배한데 두구두구생각하면 더별한 생각나오겟슴마! 살을 큰애기 열아홉살이면 서방질할때가 잇엇지、너마니! ……어름어룸하고잇다가 부광한놈이 살살 꾀여가지고、변놈이 고오음이 떠서 다라나뻐리면 고만이지、남대문입납! 어데가 찻겟소? 그러케만되면 이백오십원스래 이십오전도 생길것이라꼰 쥐좃도 엇다니!……』

이가티 짓거리는 준식이의 말이 지금 또 역역히 그의 귀에 들리는것을 그는느끼엇다。

『그랫다、그래서 내가 오십원을 먼저바뎌왓다……이도이 나뻘게 무어시냐?』

그는 부지중 이러케 혼자ㅅ말하얏다。 그럴시운에、

『형님、무슨 생각을 하고잇슴마?』

하고、홍서가 억개를 잡고흔든다.

고등이또 울엇다。다시 일자리에 돌아와서 일하라는 명령이다.

뼈가 압흐고、살이 부릇는일이 끗난뒤에 만돌이는 사무실로 불려 드리가서갈독압헤 서게되엇다.

『단신내리부터 이리오부소!앗기 놋게왓소、아리햇소데、시부존 까까소데、오누리 이리한고치루시부존 카차갓소해라!』

이상알긋한 조선말로 만돌이는 해고선언을 드럿다.

『단나상ー잘못햇소다!이번만용서하시오다!』

『안데! 안데!』

『단나상! 한번만……』

『모ー유ー나ー마리 마라!』

갈독은 소리를 꽥 질럿다.

만돌이는 하는수업다고 생각햇다. 이자가 평상시에 조흔사이라면 별문제일런지 모르나、조흔사이는커녕 자긔를 되려못먹어서 눈물기어오르는자이니 소용업슬것이라고 단념해버렷다. 한엽흐로는 주머니속에잇는 오십원이 업는긔운을 도두어주는것가튼 든든한구석도 업지안헛다.

그는 취십전을 옹켜쥐고서사무실에서 떠벅떠벅 발소리를내면서 나왓다.

축대아래 행길까지 거러나와서 그는 홍서를맛낫다.

『무슨일로 불렷더이까?』

범연치안흔 만돌이의 긔색을 살피면서 대단히궁금한듯기 홍서가 달려들어뭇는다.

『호! 오늘 늣게왓다고 해고한다기에 내엿시、조타! 고만두라! 고햇다.』

만돌이의 음성은 보통음성이 아니엇다. 그것은 흥분한、진심으로부터 흥분해올려온 목소리엇다.

『다시 청을 해봅시다. 우리두리해서 안듯거든 동무들이모두 진정해서 요구해봅시다. 일자리롤다시 못처달라고!』

『일업다나!광부질 안하고도밥먹고 살면도만짓!너마니!』

어려케 독멍스럽게 메다부치고는 되침을 삼키는 만돌이의 모양을보고、홍서는 일을 다물엇다. 자긔가 위로한댓자、그리고 다시 사무소에가서 사정을해서 복업승락을 엇는댓자、고집쟁이 만돌이가 다시다닐리치 업슬것을、홍서는 짐작한까닭이다。

皮膚チャージ 標語當選發表

汚れず痛まず滲透し早く良く効く皮膚チャージ

右 一等賞金五拾圓 福島縣安達郡下川崎村字柿澤四四番地 菅野利一

つけて爽快治つて奇麗浸ず痛まず皮膚チャージ 宇都宮市今泉町五ノ一八九 福田藤次

汚れず痛まず爽快に早く良く効く皮膚チャージ 大阪市淀川區中津南通三丁目四番地山本キヨ方 比比昌治

たる程とすすめたくなる皮膚チャージ 兵庫縣武庫郡良元村仁川 藤井良明

黴菌の隠れ場所なし皮膚チャージ 東京四谷區本村町三十三番地ノ三十二山田直吉方 佐藤守二

발ㄴ면고치낫는皮膚チャージ 朝鮮元山府鏡石洞一三九番地 平元製油所內 崔鐘壽

右 貳等 賞金各貳拾圓式

皮膚病もチャージの前に兜脫ぐ 八幡市枝光長尾町二 富永晴夫

人は親切薬はチャージ痒い所に手が屆く 東京市芝區南濱町十六番地 服部立枝

母の慈悲子の皮膚病にチャージつけ 川越市六反町 橋本榮樹

皮膚チャージ人に教へて喜ばれ 埼玉縣大澤町二丁目 金子八十八

外科神藥皮膚治療患者救星百治百癒 大連市浪速町三丁目 大連百貨店二階 王錫九

晴夜に燈火皮膚病にチャージ 朝鮮江原道春川郡春川邑 警察官教習所內 金錫安

皮膚病はチャージとキメテ良くなほせ 横濱市保土ケ谷區佛向町一六二五番地 山本日出夫

よくきいて他人にすゝめる皮膚チャージ 愛知縣守山町大字小幡 生野久仁夫

時代の要求科學が生んだ皮膚チャージ 名古屋市東區千種町池の內一一〇 田草川榮三郎方 鈴子

皮膚チャージつける爽やか癒る鮮やか 東京市本郷區神明町三八五 鈴木炭店

右 參等 賞金各五圓式

(注意) 同文句는抽籤으로決定

立會 東京朝日新聞、大阪朝日新聞社員 東京日日新聞、大阪每日新聞社員

審査……本社社長及讀賣新聞社員

皮膚病 김히 사는 寄生虫과 박데리야 에對한 滲透療法의眞髓

只今! 老炎의요때가 皮膚病最大危機!

구두속에서 헌것은 무좀의誘因이되고 땀과먼지에 더러워진 살결은 땀띠 마른옴 음부습진 等의 괴로운 黴菌 당세繁殖한 養殖場으로되야서 우리들은 多少를 勿論하고 皮膚病에 걸려잇는것이다.

特히 海水浴에 갓것은 여러가지 黴菌과寄生虫을 뭇처가지고도라온다. 輕하게 가려운것과 조금 상기되는듯한 症候를 늣긴것은 正히皮膚病의徵候로서 只今에 適當한 治療를 하지안흐면 病原菌은 急速히 뿌리를뻐더서 오래동안 禍根을남기고만다.

『病은 첫번에 고칠이 第一이다』 는것은 理想的治療다. 그리하야 皮膚病은 只今이 正히始作 이다

滲透療法 의理論

普通발르는藥은 두러운 表皮에 妨害되야서 只外部의 消毒에끈치고 또 强力的 殺菌劑는 皮膚組織을 破壞하야서 보기실흔 흉터를 남기는等의 不利가 잇슴으로 다 適當하지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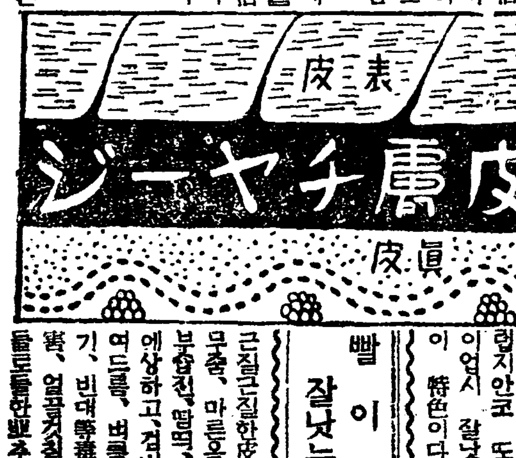
滲透療法이란것은 細菌을 化學的으로 破壞하는힘을가진 藥劑를 하나는 滲透壓力에 依하야 皮下組織의 間隙에 浸透하고 하나는 皮膚腺及汗腺의 毛管現象에 依하야서 皮膚深部에 到達식히는 物理的作用을 利用한것으로 皮膚病治療界에 一大光明을 주는것이다.

滲透療法劑 皮膚챠ー지

毛管現象滲透壓力의 物理的作用과、病原破壞의 化學作用에 依하야 消毒、殺菌、治療의 目的을 達하는 滲透療法을 爲하야되는 藥은 即皮膚챠ー지로 使用法의 簡單한것과(붓으로 발느든지、또는 脫脂綿으로 문대 발는다) 기름기 가업고 끈적지안코 또病症 이업시 잘낫는것 이 特色이다.

빨이 잘낫는다

근질근질한皮膚病 무좀、마른옴、음부습진、땀띠、구두 에상하고、겹버선、여드름、버짐、모기、빈대等毒虫의 害、얼굴거칠고르



定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全身用德用瓶五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東京神田花房町 本舖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全朝鮮男女專門學校音樂콩쿠르를 듣고서 ②

勝敗에 함께 「뮤지시안쉽」을

어번 朝鮮日報社에서 主催하는 音樂競演會는 朝鮮의 音樂界에 深長한 意味를 가젓슴은 多言을 不要하며 또한 音樂啓蒙은 朝鮮의 文化再興에 重大한 一翼임을 否認할수업습니다 따라서 이音樂競演會는 **文**化運動의 하나임을 또한 認識할수잇습니다 그러므로 今日의 우리는 누구나 이한가지 事業의 圓滿을 企待아니치못할것이외다 이에 筆者는 審査員으로서만 아니라 한朝鮮樂徒로서 이『콩쿨』에 參加하는 靑年들에게 몃마듸 살고저합니다

첫재 이번『콩쿨』에 參加하는이는 누구나다 — 高尙한『뮤지시안쉽』을 發揮하야 一等賞을 밧고저하는 勝敗的意慾을 가지는同時에 眞一에 賞을 밧지못하게되는境遇에는 가장점잔은態度로 조용히 물너가서 다음機會를 하야 새로운 準備를 始作하는 『스포-츠맨쉽』을 所有한 **紳**士와淑女들이기를 바랍니다 即이일을 고힘을도아는 戰士이기를바란다는말슴입니다 至今까지에도 多數한 申請書가 드러와다는바 競演會當時에는 各部에 一二三等 合하야 六人(?)을 除한外에는 全部가 敗北할運命을 가지고 잇슴으로 이『콩쿨』을 圓滿히 하기爲하야 또는 이『콩쿨』의 根本目的을達하기爲하야는 참여이는勝者도敗할것이어니와 참지는敗者를 더욱 어엽비볼수밧게 업습니다 眞一에 入賞이 못되엿다고 蔣心을하던지 或은 審判에 不平을 云謂하야 非紳士的 行動을 取한다면 이는 이 競演會의 **根**本趣意를 沒覺한 者로서 차라리 처음부터 參加하지 안는便이 조흐리라고 밋습니다 이것은 音樂競演뿐아니라 어떤種類의 競技에던지 不可缺할 道德이 아니겟슴니까

즐제로 어떠케 準備하여야 自己로써 最善의『뮤지시안쉽』을 發揮할까? 에 對하야 (晩時之歎이 업지안습니다마는) 簡單히 말슴하고 십습니다

『뮤지시안쉽』에는 音樂的精神과 技術 두가지方面이잇서 不可離의 相互關係를 갓고잇습니다그럼으로 競演에서 最高의 印象을 주려면 이두가지가다 **優**秀하여야 될것입니다 무엇을보고 競演者의 音樂的精神을 헤아릴고 몃가지例를 들면 自由曲目의 選擇 演奏時에 나타나는人格 音樂學徒로서의態度 藝術的良心等일것이외다

아모리그만하는 技術이 잇다할지라도 이에伴하는 精神의의護를 缺하면 그것을 藝術이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高等한 藝術을 期待하기어렵습니다 技術方面에 잇서서는 말할것가업고 도紙面關係로 말할수도 업슴으로 略합니다 셋재로 말슴드리고 십흔것은 音樂學生으로 흔히無視하는바 **健**康입니다 오래동안 참으로猛烈한 練習을해 가지고 『이만하면 된다』는 自信을 어덧다가도 及其也『스테-지』에 올나서고보면 눈압히 앗슴하고 팔다리가 떨니며 思考力이 업서 精神을集中하지못하야 그만 失敗를하는 境遇가 흔한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압니다 勿論여그에는 여러가지原因이 잇겟지만은 大部分은 練習의過度로因한 身體의疲勞에伴하는 一種의 神經衰弱입니다 이얼마나 悲慘하고 맹랑한일입니까 十年工夫나무아미타불도 분수가잇서야지요 그럼으로 出演을 (더구나競演을) 두고 練習을 하는동안에는 **恒**常健康狀態에 注意하야 練習으로因하야 消耗된 精力을 補充하고 남도록 힘써야 되겟습니다 地方에서 올나오는이는 旅行으로因하야 疲勞한데 休養할사이가업시 그냥작고 練習만하야 最後까지 極度의疲困狀態한 神經으로 스테-지우에 올나서는것은 自敗의 無謀한짓 外에는 아모것도 아니웨다 出演前 約二十四時間동안 演奏에關한것을 全部이저버리고 安靜 睡眠은 野外散步가튼것을 하야 心과身을 쉬신 安靜식혀가지고 演壇에 가기前에 徐徐히 한번(꼭한번만) 해보고 가면 大端한 **効**果가 잇슬것입니다 舞臺恐怖症이란 누구나 多少잇슴할수 업는것이나 미리注意를 함으로 相當한 程度까지 預防할수잇습니다 하고십혼말 다못합니다마는 여러분의 競演會日을 손곱아기다립니다

『피아노』科審査員 朴慶浩

現代哲學과『人間』問題

—特히『루넷산스』와의關聯에서—

⑤ 朴致祐

그러나 大體 哲學이 人間의 問題와 絶緣한때가 잇섯든가? 哲學은 人間의問題와 絶緣할수 업지안흔가. 그러타면 近者 哲學에 人間學的傾向이 좀 이러낫기로 무엇이 그리大書特記할 事件이되랴 라고말할사람도 或은잇슬는지모른다. 그러나 이러한말은 우리의 **主**張과는 何等의關係도업는말이다. 우리의問題는 처음부터 哲學이 人間의問題와 『絶緣햇든냐』 말엇든냐 에잇섯든것이아니라 人間의問題가 哲學의前面에 튀어나왓느냐 말엇느냐 에 잇섯기때문이다. 우리가 現代哲學의 가장特徵的인現象으로 人間學的傾向의 擡頭를 指摘하엿고, 이現象을 單純한一時的인 流行으로보지안코 그속에 重大한歷史的 社會的意義를 차저보려고 하엿든것은 바로이러한意味에서 한것이엿든것이다.

그러나 轉換期에는 언제나 人間의問題가 새로운反省을 惹起한다고는하나 이러한反省의 全部가 모조리 舊人間『타입』의 實的止揚을 目的삼는 그러한 **根**本的인 反省인것은아닌것이다. 實的止揚의 方法에依한 根本的인 救濟를압두고 거기에는 반드시 許多한 量的改良의 試行이 先行하는法이다 이러한先行의 最終的企圖가 곳 所謂 實存哲學이라는 名稱으로 불녀지는『하이덱겔』『야스펠스』의 人間觀이라고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實存哲學이 發見한人間도 또한 그것이本來 實的止揚의 方法에依하야 차저진 人間이 아니엿든以上 새時代의人間은 못되는것이다 實存哲學은 單只 낡은 純粹人間에 새로운옷(衣)을 입혓슴에 지내지못한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체 웨 할필로『새로운』옷이라는 말을 쓰게되는것일까?

純粹人間의 **創**造는 決코 오늘에 始作된것은아닌것이다. 따라서 구태여 實存哲學만이 이러한 純粹人間을 創造始作햇다는 말은아니다. 純粹人間을 創造한다는 한개의技術은 모ー든 有閑한 哲學人의 高貴(?)한 趣味에關하는 事實이기때문이다. 實로『有閑性』이야 말노 모ー든 純粹人間構成의 構成條件인것이다. 그러나 元來 갓흔有閑에도 여러가지 種類가 잇슬것인 以上그로말미암아 構成될 純粹人間에도 亦是 性格的差異가 업슬수업는것이다.이러한意味에서 우리는 安定期의 市民人의 有閑과 下向期, 絶望期의 그것과의 間에 混同못할 差異를 볼수잇는것이며 따라서 거기서 만드러질 純粹人間의 **性**格에도 亦是同一한差異를 指摘할수잇는것이다. 그러면 大體 如何한 性格的差異를 우리는 安定期의 그것과 下向期의 그것과의 사히에서 차저볼수잇는것인가? 이것을 말하기前에 우리는 몬저 우리가 말하는 純粹人間이란 大體 엇더한것인가를 좀더 具體的으로 말해둘 必要가 잇슬것 갓다.

우리는 時空을 超越한 人間을 遠離的으로 純粹人間이라고 부를수 잇는것이다. 웨 인가하면 이러한 人間은 現實의 人間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말하는 時間과 空間이란 것은 自然科學的 時空도 現象學的 時空도 아닌것이다. 이러한 時空은 現實的인 時空이 못되기때문이다. 우리에게 잇서서는 **現**實的인 時空은 자못 實踐的인 時空이 잇슬뿐이다. 이러한 實踐的 時間의 가장 典型的인것이 歷史生成的 時間 即 歷史的時間인것이며, 實踐的空間의 가장典型的인것이 다름아닌 社會形成的空間 即社會的空間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時間과 이러한 時間만이 우리에게 잇서서는 가장 根源的이며 具體的인 時間이다.

가을벗희 花壇

作家·評家·讀者

(四)······ 金煥泰

그런데 우리는 엇더케 行動할까는 잇서도 엇떠케 늣길까는 갈이할수가 업다. 그럼으로 우리가 **眞正**한 鑑賞能力을 으라면 우리는 우엇리스로 古今東西의 偉大한作品에接觸하야 그것들의 生命을 늣김으로써 우리의 늣기는힘으로 培養하야 鑑賞能力을 놉히는수밧게는 업는것이다.

그러면 文學讀者에 對하야 文學批評은 아모런 存在理由도가질수가업는가고 反駁할는지몰은다. 그러나 그러치안타. 나는다만 批評의 正當한 機能의 發揮를 爲하야 批評의 眞正한 **效用**을 規定하랴는데 지나지 안는다. 우리는 우리의 批評의 誤謬의 大部分이 그의 機能의 過信이나 過重에 잇섯다는것을 回想하여보라.

그러면 다음에 一般讀者에 對한 批評의 效用을 말하여보자. 먼저 知識의 側面으로 보아서 文學遺産을 整理하고 保存하여주며 文學現象에 對한 正常한 **知識**을 賦與하여주는것이 廣義로 생각한 批評의 效用이다.

그리고 鑑賞의 側面으로 볼때 眞正한 批評家는 一般讀者보다도 놉흔 文學的 敎養과 兼備한 鑑賞力이 發達된 사람이요, 따라 鑑賞하는 訓練이 잇는 사람임으로, 가장 洗練잇고 偏見과 固執업는 眞實한 讀者가, 批評을 읽음으로써, 自己의 어든印象과 作品像을 評家의 그것에 比함으로써, 自己의 鑑賞力의 **培養**에 만흔 도움을 어들수 잇는것이다.

그러고 그뿐아니라 가장重要한것은 批評이란 一種의 創作이란 그 一面에 잇서서 讀者는 批評그것을 一種의 創作品으로서 鑑賞할수가 잇는것이다. 이리하야 우리는 『쌘트, 버브』나 『콜리쥐』나 『아나톨-프랑스』나 『월터, 페이터』의 批評文을 그곳에 낫하난 그들의 創造的活動과 **個性**을 鑑賞함으로서 充分히 幸福과 愉悅을 늣길수잇는것이다.

그리고 以上에 말한여러 偉大한 批評家의 아니 그뿐아니라 其以外에도 만흔 第一流의 批評家의 偉大性은 그들의 明快하고 直截한 解剖力과 批判力에도 잇지만은 또한 그點에 못지안케 이點에도 잇다는것을 잇저서는안된다.

따라서 批評家는 그가 **讀者**에게 眞正한 鑑賞의 方法을直接으로 傳授할수 가업슴을 愧어하거나 不名譽로알음은 아모런理由도업는 것이다.

天界의領導者

紫微星變과禍亂雜記

(10) 安在鴻

夏天星象

『에머슨』은말하엿다 『마일 별이 千年 만에 하루밤식만 나타난다면 여과 나타난 神의서울의 記憶을 어떠케 사람사람들은 밋고 **골독**올하고 또後人세상의代代까지 이를傳하기로할것아이나랴』고하엿다 그러나 中國人은 이처럼날마다보이는 별의世界에다가 詩想이아닌·정말의神秘境域을 차려논바 잇스니 그中에도 最奇한하나는 即紫微垣이다 上述한 北極다섯별의 둘재별은『帝王也』라 亦稱『太一之座』라고 帝王中에도 尊嚴한 帝王이오 바로 極星의 미창으로 둘러잇는 네별들은 西藩라고하야『爲輔臣之位하나 主寶鳳機하야 所以輔佐北極…』이라고해서 許多한 解釋이 부텃고 그것을 둘러서 東西藩의 紫微垣은 **上相** 次相 上將 次將 官이 羅列하려이오 一位帝星이 이미 尊嚴하겟는데 天一星은 天帝之神이오 太一星은『赤天帝之神也ㅣ라 主使十六神하며 知風雨水旱兵革…』等等의 大威力을 부첫고 이外에도 天皇大帝와五帝座가잇서 紫城 紫宸에 龍袖 御屛이 莊嚴雄麗한듯 기의 鋪陣으로 하엿고 六宮 女御와 尙書와 柱下史로 華蓋傳舍와 內廚 天床等의 宮府中의 諸般設施가잇스니 [illegible]

『**愁雲**이 가득하고』하는 따위 春閨의 『이약이冊』은 오직드른風月로이런것을 濫用하는바인것이다

×

北極의俗名을『파지별』이니 『각수바』이라면 極星은 그파지로되엿이오 혹곡두별의 이름도잇다

泰西의 天文學이 扶筐의네별로 龍頭를삼고 天廚大星에서 목아지틈이어 東藩의 少尉星부터 西藩으로 휘돌아서 굽드린 天龍으로 한것은 上文에도 罷頜을 말하엿다 中國의天文이 房心尾를 아울러 東方蒼龍으로 한것은 貫索이잇거니와 龍의本質로서 心宿의 大火가 새밝안 心臟으로됨이 扶筐의네별로서 將쩌한 宿角을 形成한만 못하고 해서 紫微의天龍을 **玩賞**하는者 만흔데이 [illegible]

心部이오 豪華版이어서 天界의『헤게모니』라도 掌握하고 잇는상시픈것은 東方의 諸國民사이에는 머리에 바히印象이다

×

『紫微垣은 大帝之座요 天子之常居也ㅣ라』고해서 許多한 天文術을 敷衍한바 잇스나 그는 두어두고 太微가 角宿의 바로 위에 자리잡어 五月五星의 位置로되어 잇슴으로 **中途** 月星等의『犯』이 펴은 만흔터이지만 紫微는 天極에 자리잡어 嚴肅森嚴한 位置로되지라 天象의 異變이 잇슬적마다 적지안흔 人心의 不安을 일으키든것이다 高麗顯宗十九年 六月壬申에 白氣가 紫微北斗를 펴이고 二十年六月戊氏에 飛星이 紫微宮으로나와 天市에 들어갓는데 때에는 契丹과의 國交가 아즉도 어수선한 때 東女眞은 海賊로 溟州(江陵)에 侵入하고 元成星后 金氏와 千秋太后가 [illegible]

하고 二十二年五月에는 顯宗께서 昇遐하신일이 잇섯스며 同德宗五年五月 己酉에 彗星이 紫微에들어잇는데 때마침 尹瓘吳延寵이 女眞을쳐서 九城을찻고 저들의 血戰的反抗에 人心이 송렁대든 판이라 적지안흔 關心이 되엇든 것이다 同高宗 十四年 十一月 丙申에 流星이 太微帝座에서 나와 紫微句陣에 이르러 크기가 木瓜만하고 꼬리가 길기 十餘尺이오 太白星이 나제 보엿고 十五年四月 丁未에는 熒惑이 南斗를 犯하엿고 十六年十月己未에는 **崩御**

流星이 紫微西藩을犯하고 또 句陣과 帝座를 犯하엿는데 때는 契丹의遺種이 一次의 大侵入이잇서 간신히 擊退한끄테 吾甘卞等 金國의殘兵이 鴨水를건너 頻頻侵入하려하는판에 東女眞은 邊境에 侵入하는가하면 東으로 日本이 東邊에 侵入하는가하면 東女眞은 或興平野에까지 跳梁하는수 [illegible]

을斷行한 蒙古人은 往往驕慢的인 態度로 兵亂의 先聲을 노는時代이라 君民上下가 이欽天監의 報道에 가슴이모다 **덜렁**하엿슬터이다 中國에잇서 紫微星變의 으뜸가는것은 아마 晉懷帝永嘉三年正月庚子에 熒惑이 紫微를犯한는바일것이니 占하여日『當有野死之王이오 又爲火燒宮이니다』그래서 太史令은 洛陽의 敗亡을 豫言하고 乘輿의遷幸을主張하엿섯다 한테 五年六月에 劉曜 石勒等 胡羯의 사람들이 洛陽을 못질르고 懷帝를 잡어 平陽으로 갓든것이다 그러나 歷代의 天文志를 보건대 紫微의 星變은 淸平時代에도 가끔잇섯든바이오 現代의 科學은 더욱 그虛妄을 證言하야 餘地업는바이다

『白鳥』의 東으로『카시오페아』가 잇서 이즘(九月五日)에는 저녁 열時에는 거의 天頂에 또다시 天上『秋天星象』으로 밀고 이에

黃昏의默想

(詩) 高嶺民······

슬기로운 황혼의 엷은 손길이
붉은 노을을 가만히 가리운다

—○—

하로의 꿈조각이 아슴거부서젓든
고 작은 별들은, 시방
가만이 머리를 드누나

—○—

저녁바람 그윽한 저 海面우에는
한창 별들의 꿈이 잔조로
우짖지

—○—

지금은 바람도 잠자리를 펴는때
나의맘은 무척 호젓하구나

—○—

꿈가튼 이저녁에
내외로히 海邊을거닐어 가벼히
노래를 부르거니
여보
이때를 무상하고 실지안니까

海外片信

古代羅馬의 劇場發掘

【아테네聯合通信】米國『프린스톤』大學敎授『레즈리ㅡ시아』博士의 引率한 發掘隊는 過日『아테네』市內 古市場자리에서 紀元二世紀建造의 羅馬時代 大劇場의 遺跡을 發掘하엿다 右劇場은 希臘의 旅行家『바우자니아스』의 案內記에 記錄되여잇는『오데움』—古代希臘의 詩人, 作家가 그作의 優劣을 다투는詩樂館—으로서 『아고라』(로-만)都市의 『포-람』과함께 希臘都市의中心이된 (市場) 의 中央二百十七呎에 二百二十三呎의 方形大理石 建築物속에 잇고『스테-지』大略 녯날의 形態를保存하엿는데 大理石으로된『스텐드』七階段이 남어잇다고 한다.

古記錄에 徵하면 右劇場은建造後 約百年, 三世紀中에 湮滅하엿다고하여서 그附近에 무슨形跡이 잇는가는 아직 不明이라고하나 間口四百七十呎이나되는 大柱廊도 發掘하엿다 따라서 同發掘隊가 過去 五個月間에 發掘한 古代希臘、羅馬의貨幣數는 벌서 一萬枚나 된다고 한다

黑風 【223】

韓龍雲 作
金能超 畵

해후(邂逅) 9

기운이업시 누어잇든 창순의 방에는 노크를 한뒤에 드러오는 사람이 잇섯는대 그것은 경비순양함에 장교로잇는 홍겸(洪謙)이라는 사람이엇다 그사람은 배에서도 특별히 창순에게 호의를가지고 구호하야주든 사람이엇다

『륙지에 나리신뒤로 엇더하서요 아마 마음이 푸러지니까 더욱 괴로시지오』

홍겸은 창순의 압헤 선채로 이러케 말하얏다

『배에서도 너무 신세를 끼처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차저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륙한뒤로 엇전지 몸이 더옥괴롭습니다』

간신히 이러나면서 말하는 창순은 홍겸에게 자리를 권하얏다

『무론 끈하실 것입니다 여북이나 욕을 보셧나요 다른사람 가트면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그러한경우를 당하얏스면 발서 죽엇슬것 입니다 아마여러날을두고 상당한 치료를 바드서야 할것입니다』

하는 홍겸은 말을하면서 자리에 안젓다

『그러치마는 지금 알몸둥이만 잇서서 집에갈 여비도 업는대 상당한 치료를 바들수가 잇슴니까』

하는 창순은 걱정스러운듯이 말하얏다

『그게야 설마 치료비가 업서서 치료를 못하겟습니까 그것은 안심하시고 얼마든지 치료를 하십시오』

홍겸은 애교의 우숨을 우스면서 말하얏다

『그럴수가 잇습니까 차차집에 도라가서 치료를하지오』

창순은 홍겸의 말이 한편으론 감사도 하얏스나 도로혀 미안도 하고 또는 처녀의 몸으로 처음보는 남자에게 분수에 지나는 대우를 밧는것은 정당한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야서 홍겸의뜻을 사절하랴고 하얏스나 홍겸은 용이히 듯지아니하얏다

홍겸은 위선 여관주인에게 선금(先金)을 만히주어서 창순을

를 다리고와서 진찰을하고 음식과 약을 때때로 가지고와서 친절하게 위문하야주엇다

홍겸이가 그리할수록 창순의 마음은 불안하얏스나 돈이업시 병드러 누엇스므로 엇지 할수가 업섯다

창순의몸은 점점 쇠약하야 지므로 홍겸은 병원에 입원하기를 권고 하얏스나 창순은 사절하얏다 처음에는 사절하얏스나 신병이 더욱 심하고 홍겸의 권고가 굿세어서 창순은마침내 돈엇사람의 경원에 입원하야 일주일에서 석달동안을치료하얏는대 창순의 신병은 조금 나엇스나 치료비는 상당한 거액이 되얏다 병이 조금 나어서 행보할만한 창순은 홍겸의 만류도 듯지아니하고 퇴원하얏다

창순은 다시 왕한의 소식을 알고십헛다 그리하야 그때에 타고가든 가나다호의 배회사를 차저갓다

『삼개월전에 상해서 떠나서 미국으로간 가나다호가 잇지오?』

하고 창순은 배회사 사무원에게 무럿다

『예 잇지오』

하는 사무원은 조금 생각하는듯 하다가 대답하얏다

『그때에 그배가 가다가 해적을 맛난일이 잇지오』

『그런일이 잇지오 엇지 무르시오』

사무원은 이상히 여기는 듯한 눈으로 창순에게 반문 한다

『그때에 그배의 선객중에서 녀자하나가 해적에게 잡혀간 일이 잇는대 그녀자가 잡혀갈때에 그것을 막으랴고 해적들과 격투(格鬪)한 사람이 잇섯는데 그사람이 엇지되얏는지 아실수가 업슬가요 아마 해적의손에 죽엇스리라고 생각하는대요』

사무원은 그말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창순의얼골을 한참보더니

『당신도 그배를 탓섯소?』

하고 뭇는다

창순은 짐짓 못드른체하고 대답지 아니하얏다

『그배에서 해적에게 죽은사람은 하나도업소 그사람도 무사히 미국으로가고 해적들은 그남쪽서 상해로 [illegible]

이것에實로感心햇다

弱한身體가强壯히살저고 殘暑도例事로 活動하게되엇다고

感謝하는분들도잇다

體力이强한사람은 무거운것을멀리運搬하는데도例事이지마는, 弱한사람은가벼운것이라도, 힘이들고 숨이차며 땀을흘리어甚히疲勞하는셈으로腦力이强한사람은, 長時間의劇務徹夜에도, 頭腦가疲勞하지안코눈도分明하며根氣가强하고能率이나지마는弱한사람은, 新聞이나小說을보아도, 곳하품이나고졸리고疲困하야무엇을하거나따분하다그리하야 **弱**한身體를强하게하고십은맘에, 過한美食을하고高價한榮養食品을攝取한다해도胃腸이衰弱하면, 滯한다거나신물이오르나린다거나, 뱃속이不便하야도리혀고생하고, 살로도가지안는것인즉身體의속에强味잇는活力을내서, 胃腸自體의機能을根本的으로조케하야 **肺**臟心臟等五臟六腑의生活機能까지一齊히活潑케하는것이, 體力腦力을정말强하게하는健康의基礎인데、거기에는貴重한强壯劑인養命酒를조곰씩愛飮하면, 胃腸의機能이써조하저서, 무엇을먹거나맛이잇고, 잘삭아서身體가튼튼하게살것다。

頭腦도明快해지고 밤엔安眠하야健康氣分을맛보고, 더운夏日을元氣로活動하야疲勞倦怠를모르고、여름타는것도몰랏다、實로이러케 조흔것은 업다. 정말感心하엿다하고, 實驗者가사람마다感酷의소리를내는故로누구나此際에試驗하시와夏季生活을愉快히지나십시오。

울녀름에는여윈듯도 아니한健康體가되엇다

京都市 中川正夫

나는일의關係인지、夏季가되면頭腦가朦朧하야꼬박꼬박졸립고하품이나며, 갑작이일어서면眩暈이나고, 身體도漸次로痩瘠하야顔色은蒼白해지고, 밤에는잠을잘수업자며食慾不進하고하야여러가지로藥과榮養劑等도試驗하엿더니、이러타할效果도업고하야 고통하엿습니다。그러더니知人에게서養命酒가조타고勸하기에半信半疑로大瓶을사서飮用을繼續한즉、漸漸食慾이나고元氣가나서氣分도爽快해지고、몸살이오르며根氣가나고、밤에快히熟眠을하게되어 언젠지모르게頭腦의朦朧眩暈等事를잇고 지금엔全然健康體가되어非常히질기어職務에勉勵하고잇습니다。이것도養命酒의德分이라고깁히感謝하고잇습니다。 (十年七月二十三日 受付寫眞은 本人姓名은假名)

小瓶進呈

貴 重한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上等의葡萄酒보다더맛잇는것을實物로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驗用小瓶一本을 無料로贈呈中이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 葉書를보내십시오

滋養强壯劑로……
◆疲勞倦怠한사람
◆神經衰弱잇는분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鹽澤家傳 **養命酒** 製法日米專賣特許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슴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送料無料代金引換으로送料、實費밧습니다

注意 가짜가잇스니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십시오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六八八五五番

一面一校完成돼도 收容率은不過三割
二十萬學齡兒依然路頭彷徨
江原道初等教育狀況

【春川】강원도의 초등교육시설을보건대 금년중에 보통학교십이교와 간이학교(簡易學校)이십일교를 시설할 예정으로 이미보통학교는 사교가 완성되고간이학교는 이십교가 완성되엿는데 래년도에 잇서 다시신설할교십이교를 완성하면 일면일교제가 완료되리라한다 그리하야전도내에 일백칠십오학교가 설립되여 시급한 초등교육문제도다소 완화되리라고하나 현재총계로 보건대 이상의 일면일교제가 완성되여도 도내학령아동총수이십륙만여명의 삼할밧게는수용되지 못하리라하니 나머지이십만의 아동은 의연히 로변에 방황할것으로 강원도의 초등교육의 전도는 실로암담한것이라한다

漆谷郡架山、北三 兩校一齊開校

【倭館】칠곡군은 군내구면중 륙개소의 보통학교가 긔설되엿는바 구월상순경에 가산(架山) 북삼(北三)이개교가 증설되여 지난륙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엿는데 개교초이므로가교사를빌려 개학하게되엿는데따라 위선사학급만 개교하엿다하며 십일년도에는 일면일교의 완성을보게되리라한다

高等農學院認可
平壤府外松山里有志活動으로 九月三十日부터開校

【平壤】평양부외 송산리(松山里)에 소재한 송산고등농사학원(松山高等農事學院)은 작년 십이월 하순부터 발긔인 金斗赫 洪鳳植 林應鎬 林濟勳 玄世榮 洪宗鉉 崔利祚 등 송산리 유지들이 설립준비에 대활동을 하는일방 도당국에 인가원을 제출중이든바 팔월 이십구일부로 인가되엿스므로 구월 삼십일부터 정식으로개교하게되엿다 실습을 긔초로 하는 국민농도정신(農道精神)의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동학원은 수업년한(授業年限)을 이개년으로 하고 ▲公民教育 作物學 肥料學 農村經濟 加工法 등 농촌중심의 과목을 교수케되엿고 밧서 대지와 긔지 일천팔백여평을 어더 건평삼십칠평되는 원사까지 신축락성햇다 압흐로 동학원에 대하여 만흔 긔대를 가지고잇거니와 지원자의 운집으로 사십명만을 수용케된 동학원사정에 빗치어 부득이 이십칠、팔량일간 입학시험을 시행키로 되엿는바 출원긔일은 이십오일까지라한다

五高復興同情金에 숨은美談二題

【古邑】정주오산고보(五山高普)가 작년봄에 무참한화재를 당한뒤로 거의매일과가티 답지하는 각방면의 동정금속에는 가지가지의 숨은미담이 만히들어잇거니와 근일에는 또아래와가튼 두가지 아름다운 긔부가들어왓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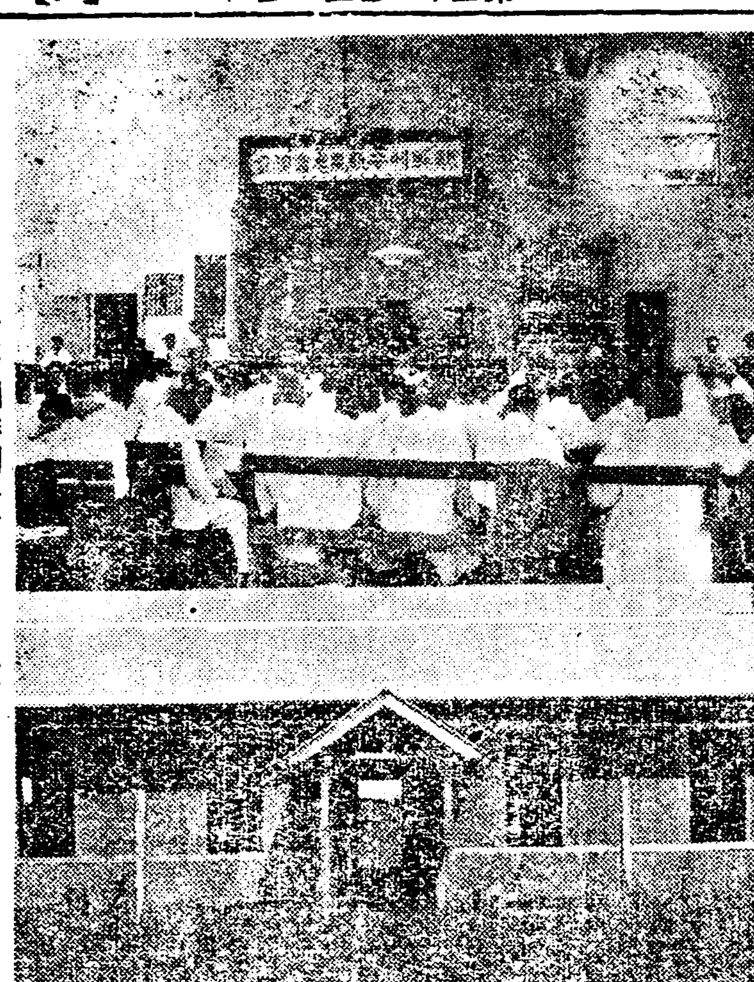
◇

이미담의주인공의한분은 정주 리흥규(李興圭)씨의모친 승씨(承氏)로서 그는지난팔월에 작고하엿는데 그는병석에 누어잇슬때에 그의아들에게 우리습관상 허례에 만흔금전을 공연히업새는것은 조치못한일이니 나죽은뒤에는 절대로 장례에 만흔돈을쓰지말고 그비용을 절약하여 공공사업에 쓰도록 하라고 말하엿스므로 그가작고한후 그의아들 리흥규(李興圭)씨는 그모친의유명을 조차서 장비에서 이백원을절약하여 오산고보에 긔부하엿다하며

◇

또 한분은 경남마산부 주신안(朱新安)녀사로서 그는근년에 그부군을여힌뒤로 오직 그의망부를 위하여 온가정성을다하므로 그근처에서 현세의열녀라는 칭송을밧든이인데 일즉부터 남강(南岡)선생의 공유을위하는 헌신적열성에 늘경의를 품고잇든바 이번에 선생의유업을 긔하여 오산고보의신축완성을 긔하여 특히 천리원정에 일부러 찻어와서 선생의 유상(遺像)에참배하고 인하여 동교에 금이백원을 긔부하엿다한다

◇寫眞……朱新安女史



◇寫眞……(上)朝鮮예수教長老會總會會場光景 (下)今般認可된平壤農事學院校舍全景

新秋佳節을期하야 絕勝金剛山探勝 本報高原支局主催

【高原】원생고려국(願生高麗國)하야 일견금강산(一見金剛山)이라는 중원문사(中原文士)의 말도 잇거니와 금강산은 세계제일의 대공원이라는 대표적 명승지로서 내외국인의 발자최가 끈치지 안는터인데 더욱이 가을의 단풍이야말노 곳곳에 그림의 병풍을 둘너싼것과 갓타서 시인문객으로하야곰시(詩)의 실마리를 풀게함은 세상이다 아는바이다 금번 본사고원지국(本社高原支局)에서는 본보삼대경사 긔념사업으로 신추가절을 긔하야 금강산탐승을 목적하고 고원역(高原驛)출발으로 오는십륙일 오전아홉시 삼십구분발렬차로 출발하기로 되엿다 하다 기간은 일주일 차비 식비선유비 사진대등 전부를 합하야십륙원 이라는데 발서부터 상당히 가입자가 잇다하며 신청긔는 당일시간전까지 비용일체를첨부하야 본보지국이나 어린선함영진(魚鎔晉、咸英修)씨에게신립하기를바란다하며 만약 인원이 초과되는때에는 부득이 신립을 사절하다하며 자세한것은 주최측에나 고원역에 문의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엡웻青年會主催 映畫大會開催

【江華】강화읍 엡웻청년회에서는 오는 중추가절을 당하야추석노리를 겸하야 강화에서는처음보는 영화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예수의일생」이란 설화를 비롯하야 문예방면의 영화를 상영키로되엿다는바 계속하야 삭일동안하리라하며 입장료는 삼십전과 이십전이라는 파격적 입장료로 이시긔를 리용하야 과거성인의 보람을 선전하리라하며 특히 이가튼 영화가 처음인만큼 관계단체에서는 단체입장을 하게되엿으로 미리미리개인은 입장권을 청년회에 예매해두는것이 경제이라고한다

大膽한窃盜 一夜二處侵入

【翠野】지난오일밤 해주취야시에는 절도가 하루밤에 세곳이나 침입하야 금품을 절취하여가지고 교묘히 그자최를 감춘사건이 잇는바 월전에도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엿섯슴에도 불구하고 재차습격을바든 시민들은 적지안흔 공포에 싸여잇다고 한다

子息放蕩으로 八十老母自殺

【淳昌】팔십당년의 늙은몸으로서 자식의방탕을 비관하고 음독자살한사건―전북순창군읍내면남계리(全北淳昌郡邑內面南溪里)사는 정서봉(鄭西奉)의 모친 림씨(林氏)는 일즉이 남편과 사별하고 오즉슬하에남은 아들 서봉이를 대사거리 밋고살아오든바 오래전부터 상념되는 전긔서봉이가 공연히 방탕하기시작하여 얼마되지안흔 가산을탕진하야 ……대하야대류의행동까지함으로 지난이십팔일오전팔시경에 집안에 아무도업는틈을 타서다량의「양재물」을마시고 참혹하게도 그만 이세상을떠나고 말앗다한다

海星、春山兩幼稚園 聯合園遊大會 九月十四日에開催

【元山】원산석우동면려소년소녀회(石隅洞勉勵少年少女會)주최와 본보원산 지국후원의 제이회해성춘산(海星春山)유치원연합원유대회는 래십사일오후 한시부터 원산지성 녀자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키로되엿는데 대회임원은 다음과가다고한다

大會長金碩鉉 副會長金俊鳳 總務姜義永 財務白會煥 施賞部金利鉉外四名 競技部鄭元根外三名 接賓部李英子外 勉勵少年少女會員 審判部康承鍊外四名 記錄部李景子一名 警護部張明煥外三名 整理部朴學浩

二百餘代表參席 長老會總會開幕
委員改選、部員選定順序마치고 九日부터新事件討議

【平壤】제이십사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륙일밤부터 평양부내 서문외례배당(西門外禮拜堂)에서 전회장 리인식(李仁植)씨 사회하에 개막되엿는데 회원은 목사(牧師)팔십인 장로(長老)팔십일인 선교사(宣教師)사십인 총계이백이인의각로회대표가 출석하엿고 임원개선을한결과 회장으로 정인과(鄭仁果)씨가 당선되엿고 남원전부는 전회와 하동변경이업섯다 출석검사 임원취임식 회장분배 부원선정등 순서를맛치고구일부터는 각부의 보고와신사건을 토의키로 되엿는데 이번회합은 십이일까지이다 개선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가트며 동총회 내부에는 다음과 가티 십개부에난호여 사무를 처리키로 되엿스며 금번총회에는 그리중대한 문제는 업스리라고한다

◇改選된任員 ▲會長鄭仁果 ▲副會長金聖鐸 ▲書記洪澤基 ▲副書記郭鍾根 ▲會錄書記羅時山 ▲同副書記朴仁寬 ▲會計高漢奎 ▲副會計李春燮

◇…總會內各部名 ▲公議部 ▲獻議部 ▲宗敎敎育部 ▲農村部 ▲傳道部 ▲外國傳道部 ▲學務部 ▲勉勵會部 ▲總計部 ▲定式捐補部

開城對海州陸上 五十七對二十七의差로 凱歌는海州軍에게

【開城】개성고려체육회와 해주체육회주최로 전개성대전해주대항륙상경기대회를 지난팔일오전십시부터 부내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본대회는 해주는 물론 개성에서도 처음보는 력사적경기이니만치 운집한관중은 일만여명에달하야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엇다는데 경기종목 십오종에 대한전적은 오십칠대 이십칠점으로 해주군이 대승하얏다하며각종목의 성적은 다음과갓다한다

【百米】一着 金昌會(海州)(一一秒四) 二着 金基燦(海州) 三着 金煥民(開城)
【二百米】一着 金煥民(開城)(二四秒) 二着 金昌會(海州) 三着 洪瓊杓(海州)
【四百米】一着 洪瓊杓(海州)(五五秒) 二着 梁錫麟(開城) 三着 金鳳喜(海州)
【八百米】一着 朴容福(海州)(二分八秒) 二着 閔成基(開城) 三着 張宙炯(開城)
【一千五百米】一着 朴容福(海州)(四分二六秒) 二着 孫政寅(海州) 三着 閔成基(開城)
【五千米】一着 金鏞植(海州)(一七分九秒) 二着 孫政寅(海州) 三着 張善鎬(海州)
【萬米】一着 金鏞植(海州) 二着 張宙炯(開城) 三着 白守基(開城)
【八百리ー레】一着 海州 二着 開城
【瑞典式리ー레】一着 海州 二着 開城
【投砲丸】一等 馬鍾秀(開城)(一一米四〇) 二等 吳尙鉉(海州) 三等 李東華(海州)
【走幅跳】一等 馬鍾秀(開城)(六米四四) 二等 金源杵(海州) 三等 李東華(海州)
【三段跳】一等 金源杵(海州)(一二米一〇) 二等 金世澤(海州) 三等 崔奎英(開城)
【走高跳】一等 崔萬逸(海州)(一米六四) 二等 金源杵(海州) 三等 李章完(海州)
【棒高跳】一等 趙雄奎(開城)(三米三〇) 二等 朴榮尙(海州) 三等 黃基仲(開城)
【圓盤投】一等 吳尙鉉(海州)(三二米二一) 二等 韓相源(開城) 三等 黃錫大(開城)

獵奇的殺人事件 不日間全貌判明?
警察은確證을어든듯

【平壤】평양서에서 목하 검거취조중인 지난 사월 모란봉공원에서 점원을 죽인사건은 그후 취조에따라 사건은 더욱 진전되여잇는데 일반은 렵긔적 사건으로 결과를 주목하고잇거니와 이사건의 주범으로 인증되는 부내교구정(橋口町) 모신탄상점주인 김학인(金學仁)―假名―외 두명은 수일전 검거된채로 류치되여잇고 피해자인 전긔 신탄상점고용인 고정후(高貞厚)의 시체는 장산묘지에서 발굴하여 해부한결과 두개골(頭蓋骨)전후의 타박상으로 뇌진탕(腦震盪)을 일으켜 죽은것이판명되엿고 또 고주김학인은 장식비용으로 백원을 보내여 무사히 장식을 필한것을 깃버하여 꼬꾸경을 가리가는 칠팔명의친구를 모묘정에 불러노코 축배(祝盃)를놉히들고 질탕호유한사실까지 발각되여 사실부인을할수업도록 확증을 어덧다

여기에 의하여 생각컨대 가해자들은 사월이십일일 저녁때모란봉 꽃노리술이 취하여 동석했든 피해자를 말도못하도록따린후 피해자의 집에당아다노코한술때에 죽어다는 탐정소설가튼사건의 실머리가 일망타진중에풀리게될터이라한다

通川藝友會主催 新秋演藝公開

【通川】통천읍내에잇는 예우회에서는 일년일차식 연예(演藝)를 공개하야 소조한 농촌의대중을 위안시키는일이 한두번아니엿스나 금번에도 다시 농촌에 한가한 시긔인 추석명절을 리용하야 본사통천지국 후원과당지번영회장 송인혁(宋寅赫)씨의감독하에 신추연예를 오는구월십이、십삼량일간에 읍내가설극장에서 공개할터이라는데 벌서예우회 간부일동은 준비에 분망중이라하며 일반은 다수관람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平壤 第四回全朝鮮水上競技

◇時日 九月十四日
◇場所 箕林里公設『풀』
◇申請場所 巡營里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南門里 大平運動具店

競技種目
自由―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背泳―百米 平泳―百米 二百米
繼泳―四百米 八百米
(每人三種目以內)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그女子의一生 (204)
春園作 夕影畫
回光篇

『으흐흐』

하고 금봉은 저도 모르는 동안에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제 소리에 깜작 놀라서 방안을 돌아보앗다。사람들이 여전히 안존양이 마치 금봉이가 지른 소리를 듯지못한것 가탓다。초스불은 약간 춤추고 만수향 연긔는 여러 모양의 커브를 그리며올랏다。

금봉은 다시 마음을 잡으려하엿다。이번에는 차라리 마음에게 갈곳을 명하려하야 금봉의 일생중에 가장 깨끗한 긔억을 남긴 동경○○학원의긔숙사로가게하엿다。

그 긔도실、탠디스부인。특히 그긔도실。가시면류관을쓰시고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화상、감람산에서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 긔도하시는 예수의화상、그 압에 경건한 마음으로 뭇어업데린 제 모양、제자리옷입은 모양、제 침대。손명규、김광진、아이낫든 아픔、제살、처음 동경갓때에 욕망에서 제몸의 아름다움에취한 저、누군지 모르게 몹시도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던 저、물의에저를 떡 겨안는 손명규、호텔、돈、삼십만원、인사동 집、남치마、호강、도업서진 부끄러움、김광진의 사랑、마츰내 김광진의 안해 홍씨가 아이 밴것을 시기하던것、아이가 떨어지기를 바라던것、아이를 낫다가 모자가 다 죽기를 바라던것、김광진의 본부인이 한번 되어보기를 바라던것、누구를 식혀서홍씨의 몸에 난 아들이 잠이들엇슬 때에 바늘로 숨구녕을찔러죽이는 광경―。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제가 경찰서로、검사국으로、공판정으로、끌려다니는 광경、그러다가 무죄로 나오는 광경、사형선고를 밧고 사형대에 오르는 광경―

금봉은 소리가 진저리지는것을 억지로 참고 이가 으스러저라하고 악물엇다。

금봉은 이 불쾌한 긔억에서 버서나랴고 이번에는 단상에 가만히 안저계신 부처님을 바라보기로 하엿다。다라나려는 마음을 붓들기를 마치 철철 넘는 물스그릇 밧들듯하고 그 조용하고 인자하고 깨끗하고 모든 정욕에서 버서나서 오직 따뜻한 자비심과 샛날갓흔 지혜만 잇는듯한 부처님만 바라보려하엿다。

그러나 그도 잠깐이오 붓들린 마음은 어느덧 또 요동하기를 시작하엿다。마음은 그몸상늪 임학재로변하여버렷다。마음에 두고 만저보지못한보흙、한번 시원히 제 속도 말해보지못한 애인。그러나 그 임학재의 겨테는 양미간을 찌푸리고 잔뜩 짜징을 내인 강영자가 살긔가 잇는 눈으로 금봉을 노려보앗다。

『이년 내 남편을 웨생각해』

하고 강영자는 금봉을 꾸짓는다。

『이년、내가 가지랴던 서방을 왜 네년이 가저 그 조흔 남편을 네년이 웨 못견듸게 굴엇、네년은 죽기나 하렴。그다음에라도 내가 가지게』

하고 금봉은 영자의 빰을 친다。영자와 금봉은 어울어저서 싸운다。

손명규가 어슬렁 어슬렁 나선다。히히하고 그진저리나는 웃음을 웃는다。

『금봉이 내가 금봉이 서방인데 왜 딴 사내를 생각해。임학재는 무어이고 김광진은 무엇이고 심상태는 다무어이야。내가 모르는 줄 알고、다 안다나、죄다 알어 히히』

하고 금봉을 끌어안는다。

『어서 뒤어저。어서 뒤어저!』

하고 금봉은 손명규를 떠밀친다。

손명규는 향항으로 달아난다。금봉은 손명규가 죽엇다는 전보가 오기를 기다린다。

『손명규가 어서 죽엇스면』

하고 금봉은 김광진의 품에 안긴다。

『요년。요사스러운 년! 내서방 웨 빼서?』

하고 광진의 처 홍씨가 식칼을 들고 덤벤다。

홍씨가 든 식칼이 번적거리는것은 불단압헤 켜노흔 초롱이오 김광진으로 보이던것은 만수향연긔다。

부처님은 여전히 가만히 안젓다。

한 승이 거의 다 탄 만수향자리에 새것 한대를 피어노코 합장하고 물러난다。

금봉은 안즌 자세를 고첫다。다리가 저리다。발에는 감각이 업다。냉수가 먹고십흐나 참앗다。

世界的회충약 마구닌錠
마구닌제리

保健은 蛔虫驅除부터

小兒健康의大敵蛔虫은腹中에寄生하야營養分을奪取하야發育을阻害하며運動不活潑腦力減退뿐아니라延하야는生命에까지威脅을주며또는何時侵入되는지모름으로每月蛔虫驅除日을定하고服用케함이必要합니다

蛔虫藥은四大特長을가진마구닌을먹이시요

1、마구닌은산토닌과가튼副作用이絕無
2、마구닌은下劑併用이不必要
3、마구닌은산토닌가티排虫時不快感이업시不知不識間에驅虫됨
4、마구닌은排虫率이優秀함

마구닌錠 〇、三〇 〇、七五 一、三五 七、五〇
마구닌제리 〇、三〇 〇、五〇 一、〇〇 二、〇〇

京城西小門町 藤澤友吉京城支店

梅毒의温泉 草津에 베루쓰博士의記念碑
名士들이參列하야除幕式
變動이만흔氣候에注意를要하는潛伏梅毒

世上이다아는、草津溫泉은、梅毒에特効가잇는温泉으로有名합니다。이것은梅毒治療上、特히必要한藥物과同一物質이、이温泉에는만히含有되어잇는때문이라고합니다。그러나、草津温泉이참으로學理的으로보아、梅毒에有効한温泉인것을世上에알게하야、一層그이름을널리퍼치게된動機는무엇?―이것이我國政府가처음으로獨逸로부터招聘한ベルツ博士이엇기에그이름을이르게한것입니다。

梅毒患者를보고

ベルツ博士가、얼마나研究心이만핫든지는、博士가帝國大學의敎授時代에자조草津溫泉에놀아、一梅毒患者가이溫泉으로治療한그狀態에힌트를어더、溫泉의含有物을調査한結果、따는그含有物이此種疾病에適應한것을發見하고、그後는草津西河原에、一病院을建設하야、溫泉療法과共히、博士自身의學理的治療에依하야、무서운梅毒의一掃를期하엿습니다。그러나그奔走中에不得已歸國하게되어、實現을보지못한것은、참으로遺憾입니다。그러나、草津溫泉에게는ベルツ博士는잇을수업는大恩人인것은더말할것업습니다。

學界近來의美擧

그리하야土地人들은、博士를草津의恩人으로여겨、요지음土地方의有志家를爲始하야、緣故잇는東西의學者實業家를網羅하야、博士가病院設置의地로定하엿든、風光明媚한西河原에ベルツ博士記念碑가建設되고、知名의 諸氏參集下에盛大한除幕式이 行하야近來의美擧로學界의話題가되어잇습니다。그러므로、이光輝잇는歷史로생각할지라도梅毒과草津、草津과ベルツ博士―의이름은永遠히結合된셈입니다。

危險한潛伏梅毒

이와가티、ベルツ博士가草津溫泉을사랑하고、病毒에呻吟하는患者에對하야衷心으로同情을가지섯든大學者이어니와、東實、今日에는梅毒에關한知識이進步하엿다고는하지마는、아직依然히그무서운것을모르는사람이잇습니다。例하면姑息的療法을한사람이潛伏期에들어가면그것이全治된것가티알고治療를中止하는일입니다。潛伏期는第二期로부터第三期로移行하는동안에생기는病狀인데壯年이나、比較的健康한사람은非常히潛伏期가긴故로放心하지마는그러나오랜潛伏期間放心하고治療를게을리하면當然히第三期症狀으로移行하야梅菌은全身에퍼지고이때문에皮膚面의發疹은惡化하야脫毛、鼓膜等의보기실흔症狀外에顏面蒼白、頭痛、眩暈、耳鳴、血壓亢進、便秘等神經衰弱가튼症狀을나타내고、또더進行하야는腦髓를犯하야癱瘓狂이나脊髓癆의重態에빠저서다시는일어설수업는悲慘을보게됩니다。

注意해야할氣候

特히最近과가티急激한氣候의變動이잇는때는、特히潛伏梅毒에注意하야、最善의治療를하지아니하면안됩니다。前述함과가티、梅毒이라고하면、곳草津의溫泉과、ベルツ丸을 聯想하거니와、共히梅毒患者의、實證的인되어잇는溫泉이오、適應藥인때문입니다。要컨대ベルツ丸의好評이잇는것은効果가正當한그러고眞摯한適藥인때문입니다。ベルツ丸은平素에服用하면、그藥質作用으로因하야、血液中의梅毒素가體外로 排泄될뿐아니라、모든內臟、特히胃腸障害를整頓하고、梅毒患者에흔한動脈硬化、常習便秘도自然히업서저서、大小便의排泄도極히自然하야食慾이大進하고、血色이조하지며自然히健康美를具備하야梅毒의病根을一掃할수가잇는것입니다。

創見以來의好評

以上、梅毒의溫泉、草津의ベルツ博士記念碑建設의擧를祝福하며兼하야 關梅內服藥ベルツ丸의効果에對하야 말合하엿거니와 요지음과가티 氣候不順한때初期晩期를通하야 梅毒으로 辛苦하는분은 創見以來好評이잇는ベルツ丸으로 그豫防과治療에 一層努力하시와 淸靜한 健康美를마음어두시기를바랍니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獨逸ベルツ博士
SUZUKI NIPPON-SEIYAKUSHA

梅毒、痔毒、横痃、淋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티스、痛疾、皮膚病、化症、梅毒性便秘等에 特히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價藥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清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茅場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伊太利「떼프레」策
「에」國征討로危機增大
❷ 「인프레」로移行決意

物價는 國內的으로나 世界的으로나 下落치안엇슴으로 伊太利商品의 輸出伸張力도 增大될理가無하다。一九三四年末에至하기까지 貿易貸借의 逆調가 繼續되어 그入超額이實로 二十四億리라에 達하얏다 三三年度의數字에 比하면 八千萬리라의 增加로서 貿易貸借의 逆調에 應하야 金은國外로 流出하얏다。三四年初의 伊太利中央銀行의 金保有額 七十一億리라 이러한것이 年末에는 五十八億리라로 減少하얏다。爲替保有額은 年初二億七千리라로부터 十一月의 三千乃리라로 約十分一로 低下되어이勢로 貿易의 逆調가 繼續되고 金流出이不息하면 伊太利도 일즉이 獨逸이맛본 狀態에 빠질지도 모름으로 三四年十二月八日에는 嚴格한 爲替統制規定한 法令이 發布되얏다

×

同法令에依하면 銀行、會社及 伊太利의 國籍을둔 모든國民은 十日以內에 그所有 爲替等을 政府에 讓渡하여야하며 彼等에는 그날의 市勢로써保有한 爲替를 政府에 讓渡하여야하고 勿論彼等은 今後獲得할爲替等에 就하야서도 그때마다 同樣의 手續으로 出할義務가잇다。如斯한政策에 依하야 政府當局은 中央銀行의極度의 爲替保有高의 減少를 막고저試하얏다。

떼프레金政策에依하야 國內物價를引下하고 輸出伸張力을增加코저하는計劃은 完全히 失敗되엇다。財政方面에잇어서도 또 所期와如한 緊縮政策을繼續하기는 不可能하얏다。豫定의 俸給引下는 容易히 實行되드래도 諸工業에對한 補助金의 給付、救濟作業資金의支出을中止키는 대단히困難하다。實行한 가장重要한政策은 政府公債의强制的借換에依한 利子支出의 幾分의 節約이엇다。三四年度의財政도 二億三千萬리라의 赤字를내이엇다。

×

一九三五年에入하야서도 入超는 繼續되어 一月의 入超額은 二億四千萬리라에 達하고 三四年度에잇어서도 겨우 二個月間에 不過하얏섯다。更히 對外債務의 排收라는 非常手段을 講究하얏슴에不拘코 中央銀行의 發券準備額은 겨우 一億리라를 增하얏슴에不過하며 三五年二月初에 更히새로운 金流出까지 招하얏다。三月途間에至하야 伊太利政府는 極度한 輸入制限을 實行함과 同時에 從來 取하야오던 떼프레金政策의 放棄도 意味하얏다。政府當局은 三五年度의 輸入額을 三四年度의 三五%로切下할것의 布告를發하얏다。如斯한 極端한輸入의制限은 實行하면 國內의物資는 缺乏되고物價가 騰貴할것은 必然하다 政府自身도物價 騰貴의 不得已한것을 說明치 안흘수업서如斯하야 떼프레金에 依하야 國內物價를 低下식히고 輸出伸張力을 增大케 하자던 政策이 失敗에 歸한것을 告白한것에 不外하다。

×

떼프레金政策의 放棄는 그것에依하야 解決할수잇는 問題를 解決할수잇섯는가? 輸入의 極端的制限의結果 國內物價가 騰貴할은 說明할것도업고 更히 輸入制限에對하야서는 外國의 報復도 豫惜하여야할일로서 輸出은 必然히 減退하여야할것으로 今年五個月間의 輸出額은 前年度의 同期보다 一億五千萬리라의 減少를 示하얏다。勿論 輸入額도 減하얏스나 理想대로는 減少치안코 前年度에比하야 겨우 一億五千萬리라의 減少에 止하얏다。從하야 輸入의 極度制限에不拘코 貿易貸借는 一向改善되지안엇다。輸入制限에 基한 物資의 缺乏때문에 年初以來 物價는 顯著히 騰貴되어 今年五個月間의 物價의 騰貴率은 實로 九%에達하얏다。그에應하야 生活費指數도 年初의 六九·七에 對하야 倍加、價格은 떼프레金時代에 引下되대로 되어잇다。그럼에도 不拘코 物價는 去益騰貴되는中이다。消費者大衆의 窮乏化는 激化되는中이라고 結論치안흘수업다。

×

에디오피아 의征討計劃은 如斯한 떼프레金政策으로부터의 非難을 一掃케한것이라고 생각할수잇다。이征討에 要하는 費用은 五億 乃至六億리라로 推算되나 그러한少額에 止할수잇슬지? 何如間 그費用의 大部分은 軍需工業에의 補助金으로서의 經濟的 意義를 가지고 잇다。이補助金에 依하야 軍需工業의 活動은 活潑케되고 一時的으로 國內的活況도 齎來할수잇슬지 모르나 그에 應하야 貿易貸借가 現在 以上으로 惡化할것도 免할수업다。財政만아니라 財政上의 負擔은 增加되고 歲入不足額이 現在 以上으로 增加할것도 必然하다。

七月二十二日에 至하야 伊太利는 金準備保持의 廢棄를 表明하얏다。이에 依하야 인프레金政策移行의決意를 一層明確케하얏다그러나 如斯한 인프레金政策의 實行에 依하야 現在 惡化된 經濟狀態를 救할수 업슬것은 以上의 說明으로 짐작할수잇다。(終)

朝鮮米運賃協定
結局解決點에到達
運賃低廉과公平을原則으로
△—根本對策을決定

米輸送紛糾도 總督府三局會議의 結果 根本對策을 決定하고 過般以來 朝鮮米協會 菱本理事長은 朝郵、大阪商船等의 日本內地 荷主에對한 工作으로되잇든바 將來할 新穀期로부터다음과가튼 朝鮮米輸送 統制가實現키로되엇다 即總督府의 輸送에對한 三大方針인 責任積載運賃低廉 公平을 原則으로

一、朝鮮米積載는 朝郵商船을中心으로하는 船會社團에 特約輸送케함

二、運賃其他는 極力日本內地朝鮮 荷主及 大小荷主間을 合理化하야 公平을期함

三、船會社와의 運賃協定은 朝鮮航同盟의 弊害를 除去하는것을 基準으로 決定케함(北朝鮮油肥積載의形式에倣할豫定)

大體右三項을 骨子로 한것인데 既報한과가티 日本內地阪神荷主와의 諒解도 成立하엿다 그러고 이에對하야 九日齋藤總幹事長은 ⊕協會新井氏를 데리고 總督府室本商工課長을 訪問하야 山澤農産課長과도 懇談하고 이에對한 穀聯의態度에 對하야協議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輸送問題에 對하야는 總督府에서 工作中이며 穀聯으로서는 當分間靜觀하고십다 穀物大會까지 具體的의 解決을圖한다

고 同答하고 總督府의 統制方針을 說明한바가 아니면 穀聯側도 諒解가 잇서 輸送混亂도解決點에 到着한것이라고 말한다

新穀出廻期
漸次接近으로解決에

別項과가티 朝鮮米運賃問題는 最近總督府關係三局會議를 비롯하야 森朝郵社長의渡東 山田同社營業課長의渡阪 穀物聯合側의動向等으로보아 그解決期에 漸進하는情勢이다 一面으로 鮮航同盟會의船會社側은 大阪에서 對策을協議하고 山田朝郵營業課長은渡阪하야 同協議에參加中으로 新穀出廻期에直面하야 朝鮮米運賃問題도 解決에 接近케된것이라고한다

人絹染色統制陳情
朝鮮間染色織物을激減
生地物移出增으로打擊
染工聯代表가渡來

日本人絹輸出染色工業組合聯合會에서는 商工省의 干涉에依하야 從來自由移出地이든 朝鮮向人絹染色織物이 海外輸出과 同一取扱을 밧기로된 結果 朝鮮向人絹染色織物量이 激減하고生地移出이 增加하야 會員의打擊이 莫大함을보고 商工省에 對하야 輸出向取扱의 解除이나 朝鮮向人絹生地織物의 禁止運動을 일으키기로 되엿슴으로 朝鮮總督府와 朝鮮內人絹扱業者에 그協力을 求키爲하야今月中旬 代表者四五名이 入京키로 되엇고 이에 對하야 朝鮮織物協會內의 人絹染色業者 入社로서 組織된 染色部는 이보다 먼저 對策을 樹立키로 되엇는데 朝鮮으로서는 染色業者八社는利害關係가 깁흔 마큼 多少 日本內地 業者와 意見을 달리할것으로 觀測되는데 人絹扱一般業者는 이것을 歡迎할모양이라고 한다

外地產業會社
利益을擁護
拓務省이對策作成

【電通東京電話】拓務省에서는近年日本內地產業會社에 比較하야成績이 良好한 外地產業會社의營業成績을 逐一調査中이든바外地의 利益金大部分은 日本內地에 從入利用됨이 判明하엿다 即樺太의 王子 製紙、臺灣의 砂糖會社와 가튼것은 그例가 顯著하다 이와 가티 日本內地 資本家가 한무로 外地를 犧牲하야 利益을 搾取 한다고 非難을 밧드래도 할수업는 結果가 되음으로 過般以來 그具體案에 關하야 調査硏究中이든바다음과가튼 對策을 엇게되엇다

一、樺太에는 未開國有地處分例의改正을 하고 王子製紙와가튼 獨占事業으로 特殊的利益을보고잇는 會社는 犧牲投資를 斷行케하야 造林에 努力케함일

一、臺灣에서는 拓殖會社를 創設함 製糖會社로 하여금 適當한 犧牲出資를 하게하야國策遂行에 寄與케함일

一、南洋에잇서는 南洋與發會社로하여금 拓務省과 南洋廳의 考究하는 南洋發展策에 寄與케함일

一、其他一般會社에 對하야는 外地에서 어든 利益은 이것을 外他에 還元케함 具體的實行方針을 樹立할일

拓務省은 이目的을 貫徹키爲하야 各關係會社를 個別的으로說得할 意嚮이라고한다

九日日米爲替

▲東京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九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二一分三	
	買	一志二片	八分一
▲大阪			
對米	賣	二十八弗十六分十五	
	買	二十九弗十六分十一	
對英	賣	一志二片三二一分二	
	買	一志二片三二一分五	

"洋灰풀實施"
統制外朝鮮에
◇……聯合會挑戰開始

세멘트聯合會에서는 對朝鮮向세멘트移出에 對하야 九月로부터 洋灰풀을 實施키로하엿는데 이것은 統制外에잇는 朝鮮에對하야 積極的實力競走手段을 取하엿슴으로 朝鮮세멘트界는 今後深刻할풀 對小野田의 價格競爭을 展開할것으로 豫想되다 洋灰풀의組織은 今夏以來從前의 比率踏襲競爭은 聯合會의 步調一致를缺하엿슴으로 比率를 廢止하고 日合會共同計算出荷로하엿는데이것은 現在의 朝鮮移出向(約十二萬噸)은풀에서 내노코 그損失 利益은 各社에서 分擔을하야對小野田의競爭力은매우强力化가 豫想된다이에對한朝鮮小野田의方針은아즉總督府에도 報告가입다 新設成의 川內里增産民山新工場能力을 活用하야 地盤擁護로 內需품과對向할것으로豫想된다

깨솔린價
值上斷行?
自動車業者打擊

法令에 依한 깨솔린六月 蓄油實施期의 延期로 安靜되엇든깨소린界는 여러가지의 事情으로 結局二、三錢의 値上은 不可避라고 하면 그結果 現在府內깨소링、스탄다드小賣市勢一개롱四十九錢은 五十錢以上으로 되야 스탄다드 利用의 自家用트럭乃至小營業自動車經營者와 適當한 蓄油設備가업는 택시業者는 非常한 打擊을免치 못할것이라고 한다

東拓의
旱魃對策
目下考究中

東拓에서는 木浦、裡里兩支店管內의旱魃對策으로 水稻移秧不能耕地에對하야 蕎麥其他 季節代用食의 播種을 하기로 되엇는데 根本對策으로는 旱魃實狀을調査한뒤 小作料免除 糧米의貸與等을 하기로되야 目下 그對策을 考究中이라고한다

北滿의新小麥
續續出廻狀態

【新京電話商通】天候順調로 新小麥의各沿線 馬車出廻가최근活況을呈하야 市勢가 떠러지는 一因으로되바 某處調査에 依한 濱洲線京賓線各驛의 一日出廻는 大體다음과 갓다고한다 (以下單位車)

▲濱洲線 安達一二〇▲萬溝一〇〇▲其他七〇▲小計二九〇

京濱線 三岔河一七〇▲雙城堡一二〇▲其他驛七〇▲小計三六〇▲總計六五〇

即 一日平均 六百五十車內外의 多量에 達하고그主要產地인 濱

各地米取賣買

朝鮮內 各地米穀取引所의 八月中賣買高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百石)

	總高	最高	最低	平均
大邱	一、六〇四	一、三三六	三六	六六
釜山	四六三	五五二	六六	二三
群山	一、九九六	一、四〇〇	三〇	五八
木浦	四、二九四	四〇	四	一九
朝取	四二、三三三	三、五五四	六六	一、三六六
南浦	未着	—	—	

北洛線은 아즉 出廻가旺盛치못하고 最盛期는 十月中旬頃으로觀測된다고한다

伊太利의
銀行利上
四分半을五分으로

【電通羅馬八日發】伊太利銀行은 公定割引步合을 九日로 부터 五厘를 올리여 五分으로할을 八日에公表하엿다

朝鮮煉炭公司
第一回會合開催

既報 煉炭合同七社代表(大同缺席)는 九日 總督府에서 會見 總督府側은殖産局長 西村鑛山課長代理 村上 黑木兩技師等이 列席하야 當局의煉炭統制方針에 依하야 合同新會社創立을 決定하고 正午에解散하엿다

그리고 今後의 各社評價査定 資本金額 販賣機關等의 具體項目에對하야는 創立準備委員會에 이것을 맛기기로하엿다는데 出席者及委員(○所)은 다음과가다

○朝鮮無煙炭(川勝)○東拓(高橋)○平壤煉炭(丸山)○宮尾煉炭(宮尾)○昭和煉炭(山口)○總督府委員(黑木)○遼寧(片山)

經濟界消息

○農事問題座談會‖朝鮮農會에서는 九月卅日 午後一時부터 京城銀行集會所 或은京城俱樂部에서 農事問題座談會를 열기로 決定하엿는데 그出席者는 施政當時의 農事經營者及 關係官七、八十名의豫定이라고

○朝鐵總會十月廿日頃‖朝鮮鐵道當期決算은 月末로 끗내이고 十月廿日前後 定期總會를 召集한바 當期는 米出廻를 비롯하야 一般夏枯期로 好調를 보지못하엿스나 前年同期의總收入高百四十五萬七千圓에 比較하면 旅客 貨物의 移動增加와 石炭 枕木 人夫賃의昂騰으로因한 經費膨脹을 빼이고相當한 純益增加를 計上할것이라고

株式
雙方警戒
閑散
商況 [九日]

前場軟調 休日을지난 今前場도 何等의新味가업서 閑散裡에 軟弱商狀이엇스니 即東新六十錢低인 百四十一圓十錢、日產五十錢低인 七十六圓四十錢、大新六十錢低인 八十六圓七十錢 朝新二十五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日魯依然十六圓七十錢、日石四十四圓三十錢 各一本이잇섯다。

後場閑散 後場은 東新四百十一圓五十錢、日產七十六圓七十錢、大新八十圓九十錢 朝新二十五圓七十錢에 保合寄後 閑散하게 東新 一圓六十錢 日產六圓六十錢에 大引

形勢五里霧中

所謂가을市勢의 第一期戰은 過落의訂正高로 第一期戰은맛치고 第二期戰은 歐阿의戰爭氣分으로 繼落하야 그序曲을奏하는모양인데 新現象으로서 戰時氣分特有의 時局關係株가 中心이되고東新株는 全然圈外되어잇는바 그것도 時局關係會의 水氣가 複雜多岐하야 그裁決이 急速히되지안흐며 앞으로는 開戰을떠드나 伊도 軍資은 準備가 不充分하다는 소식까지잇서서 지금 形勢로 開戰、和平이 全혀 五里霧中임으로 뭇처럼 獨走觀을가진 사람들도 積極的買進치를 못하고 形勢傍觀인모양이다

新材料「爲替」

今日入電 米日爲替는 二十九丁으로 又復五仙低이엇는데 스텔링은 四十六弗臺로 依然軟調이엇다。米國景氣는 好調를 反映한一面 伊엘紛爭에 英國이그渦中에 投함을念慮로 歐洲政局不安을材料로 倫敦市場으로부터 資金逃避가顯著케되고 英國이 米國으로부터 輸入超過期인關係로 스텔링軟化가더눈에 띄이게 되며當分크로스 反撥이 難望인 情勢인데 日本은 이爲替低가 羅稱되면 輸出商品關係에 好影響을 豫想하야 此方面株에 買氣가喚發될것으로보기도하는모양이나爲替가 이대로작구떠러질가?日本의最近爲替률 磅과相結한만큼 크로스軟化에依하야 對米爲替暴落이問題視되는데로『爲替』가 新規材料로서 株界를 登場한더이다。

爲替가 磅과相結 되엇다하나 이以外에 圓自體에도 材料가잇서貿易、貿易外 收支가 改善되고 國內情勢가 安定되것等으로 보아 또는上期에 七千五百萬圓의銀이 日本으로부터 나가서이것이 紐育、倫敦等 世界爲替中心市場에서 爲替資金으로서 어떤程度힘이 되것을 생각하면爲替低가 작구繼續되라고만 保證할수 업다는 觀測이잇다。

今日財界 (九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三〇·四五	五低
大阪期米	先限	三〇·五五	二低
仁三等米	一石	三〇·五〇	
玄米一等(仁米前場引値)		[illegible]	
正租(仁川)叺		[illegible]	
一斤 銀在米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單位圓)

東新		[illegible]	低
朝新		[illegible]	低
日產		[illegible]	低

◆商品 (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低
大阪棉花	[illegible]	低
大阪人絹	[illegible]	低
大阪砂糖	[illegible]	低
紐育現物	[illegible]	低

百萬石拂下?
市勢先驅瓦落

政府의 古米四十萬石拂下는 旣히完了하엿스나 米價에는 何等影響이업고 물이혀 政府로서의拂下를 하지아니함을 機로하야 買氣旺盛하더니 一休 今朝에入하야 政府는 端境期의高米價를 抑制하기爲하야 百萬石을拂下할것이라는 臆測의說이 俄然 濃厚하야 三十圓子內外의突落을 告함에至하엿다 此는 這般 米穀委員會에서 決定한 百萬石買替問題인데 古米百萬石을 拂下한後 新米時代에入하야 百萬石買上하게될으로 먼저 拂下의影響을 밧게되고 買上의影響은 追後에 미치게될으로 누구나 目前의事情만을 材料視하야 買叩不合致으로 市勢는 政府의正式發表가 업슴에도 不拘하고 先驅的 瓦落을 告하엿다。果然 百萬石을 一時에 拂下할지는 목으나 市勢는 旣히 行動을 加하엿슴으로 此에서 又復 瓦落을 許하지는 안흘것도 갓다。今後果如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二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前場 …

三十圓十四錢止와共히 二十七圓九十八錢에 劉定止한後市勢은 一休 今朝에入하야 初付二十九圓九十錢인 二十七圓七十錢인 二十八丁瓦落 二十七圓七十錢인 二十四丁突落拂하고 으로 望過拂한後 阪地 二圓九十九錢까지 小戾하엿다가 八十六錢에止하고 七十四錢까지 少戾하엿다가 六十三錢으로 反落止揚하엿다

後場續落 後場은 二十七圓六十錢에 寄한後 始場後 二節五十三錢에 三十二錢低로 大節四十九錢에 떠러지고 緩落步調로 六節四十九錢에 崩한後別欄가리 止揚하다

颱風半島上陸
被害는輕微?

警戒中에잇든 颱風은 昨夜全南南部海岸으로부터 半島에上陸하야 今朝는 全南麗水北方에잇서 그中心勢力이 七四二耗로減衰하엿스나 그로因하야 半島南部는 暴風雨의區가多하고 東側도 降雨가잇스며 京仁 西朝鮮方面은 曇天인데 京仁地方은 바람이强하고 特히 濟州島는 三四日暴風雨로 그雨量이 百三十三耗에 達하야 農作物의被害가 相當하고 南朝鮮一帶는 三十耗內外의 降雨로 被害가 輕微한모양이며 日本內地는 北九州地方이 颱風의影響이不無하다고한다。그런데 이颱風은 東北東으로 進行하야 日本海로逸走할모양인데 그通路에當하는 平南北과 江原道諸島는 風雨가强하고 또北朝鮮은 處處에 降雨가 잇슬것이며 其他는 漸次好天候로恢復될것이라고 仁川觀測所는 發表하엿다。그럼으로市勢는 當分高價를 一巡하엿다고도 볼수잇다。今後의 天候 또 如何?

仁川在米減少

【仁川】本月七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品이一六、一〇五叺의 減少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九六、四九九叺 (民)二四、三四七叺 五斗入一、九八七叺 ▲白米一五〇叺 ▲正租叺入(政)六六、九三一叺 (民)一三、三一〇叺 俵入(政)一八、五九二俵 (民)二、六八九俵 ▲大豆六、五六八叺 ▲小豆一四七叺 ▲大麥(白)一、四五五叺 (裸)五一一叺 ▲小

各地正米

京城續騰
定期低이나마 地高와貿物薄으로 氣配二十錢騰인 丸仁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

仁川昂騰
阪地의 注文이잇合과 實需側의 買氣熾烈로市況이 頑强하나 實物薄으로 取引이거의行치안어 氣配二十錢昂騰인丸仁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五十錢、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釜山强調
颱風襲來로稻의被害甚大를豫想하고 投機側의買氣가 잇스나 實物薄입으로 必需側에四三三叺이 팔릴뿐이고市況은 繼續하야 强調인四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四錢

大邱奔騰
南朝鮮의 稻作被害를 豫想하고 思惑買氣가 旺盛하며 產地의 漸高를 反하고 定期低에 逆行하야 三十錢奔騰을 告한 四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群山反落
産地買付難으로 實物이 拂底이나마 昂騰하든 伸價인데다가 期米低를 入하야 氣配만 二十錢反落인 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四圓丁

木浦一息
價位觀으로 買氣冷却하고 消費狀調를 丿고 一息商狀을 星한 丸ホ多際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雄町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南浦周調
期米低이나마 所持側은 實物薄을 强치안코 依然强調하야 九十龜地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五錢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正米側乘換 地場來客側利喰 ▲買方 地場神戶側 朝鮮側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市場六感

株
爲替大暴落으로 出産業方面株는 好感이나 東新等人氣는 人氣圈外에서 氣迷만深甚▲開戰、非開戰을알수업서 五里霧中에서 强弱雙方이 對峙▲倫敦金塊暴騰으로 日鑛이 好感되고 日産도 機만잇스면 買할모양가튼나머리가 묵어워 八十圓도못보인다▲어되까지든지 物色買時代로서 雜株中心의 循環高는 그럴失한모양이나 東新에는 人氣依然히업다▲最後는 東新에

米
颱風이 上陸할것이라하야 一昨日의人氣는 자못 熱狂的氣勢로 一段高價를示하더니 一休 今朝의人氣는 俄然惡化▲昨夜半에 全南南部海岸에 上陸한颱風도 七四二耗로 衰弱하야 農作의被害가 輕微도하거니와 政府米의 百萬石拂下說에 實氣가 又一層 旺盛▲그래서 阪地는 九圓八十錢臺로 當地는 七圓六十錢臺로 俄然 反落▲그러나 此 百萬石拂下는 過般 米穀委員會에서 決定한 百萬石買替인만큼 拂下後에는 그程度의 買上을 하게됨으로 結局一軟一强의 材料▲그러나 拂下를 먼저하고 買上은 新米時代에 實行하게됨으로 結局大勢는 先低後高▲그러데 颱風時勢도 一巡하고 拂下市勢로 一端 行動을하엿스니 이로부터는 保合時代?▲그러면 朝鮮은 平年作 日本內地는 平年作이 못될 모양이니 安心賣도亦難▲何如間 大勢는 아즉도 如何히 展開될지 疑問이니 當分 傍觀하는것도得意

買氣가 灼烈케되리라는 觀測이업지도안은모양이나 最後、最後하고 언제올는단말인가?

期米
崩落
拂下說로
場前瓦落 再昨後場一服地

東京短期株式 今日까지高低

	高價	低價
▲東新 今年中	[illegible]	[illegible]
昨年中	[illegible]	[illegible]
▲大新 今年中	[illegible]	[illegible]
昨年中	[illegible]	[illegible]
◇鐘新 今年中	[illegible]	[illegible]
昨年中	[illegible]	[illegible]
▲日產 今年中	[illegible]	[illegible]
昨年中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三八	五九	五五〇七〇
東新	四三	五〇	六八四六〇
大新	三〇	六〇	七八二五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十枚	
▲東邦電力	[illegible]
▲帝麻新	[illegible]
▲川崎造船	[illegible]
▲川崎優先	[illegible]
▲에라파이新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帝火	[illegible]
▲大島製鋼	[illegible]
▲朝鮮金融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環境低를參酌하야 人氣 鈍重하고 市況은保合이다
甲 五分利 一〇四、二〇

金融 九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九日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九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시카고期麥◆ [illegible]

◆綿油冲價◆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綿搾粕冲價◆ [illegible]

金白金
銀金金地
高價買入
京城明治町一ノ五九
京城 雨宮金銀店
電話本局二三八二三番·電車明治町丁目下車

金·白·銀·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壹五壹五四番
地方註文 代金引換販賣應酬 送料先金要

株式 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八·六一〇 累計一五七·九一〇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九日

◆朝取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商品 九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海外砂糖◆ 秋風 實勢 陸爪九·十月 五廂七二仙二分一 倫敦九·十月 四志二片四分三 現物糖(ST) 賣買中値二〇·七五